



# ‘김포, 서울 편입’ 추진에 인접 시군들 “아직 고려 안 해” 관망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경기도 김포시를 서울특별시로 편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한 데 대해 인접 시군의 추가 편입 추진 여부도 관심을 받고 있다.

여당 대표가 김포뿐 아니라 서울과 인접한 소규모 도시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생활권, 통학권, 직장과 주거지의 접근 상황 등을 고려해 해당 지역 주민들이 원활 경우 서울 편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31일 경기도 지자체에 따르면 여당이 밝힌 서울 생활권에 근접한 도내 시군은 김포 외 광명, 부천, 고양, 구리, 하남, 과천 등이다. 하지만 김포를 제외하고 다른 시군에서는 지자체 차원에서 아직 별다른 입장은 내놓지 않고 상황을 지켜보는 분위기다.

서울 통화권(지역번호 02)으로 묶인 광명시 관계자는 “시민들의 의견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하는 사안인데 현재 편입

요구는 없는 상황”이라며 “추후 중앙정부와 경기도의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모니터링하겠다”고 말했다.

같은 서울 통화권인 과천시 측도 서울 시 편입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과천시의회 김진웅(국민의힘) 의장은 시민 의견을 들어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의장은 “어제 지역에 있는 당 관계자 몇분과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시민들이

## 생활권 묶여 논의 여부 관심…“총선카드”·“집값영향” 반응 엇갈려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한번 들어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한다”며 “어떤 식으로 주민 의견을 청취할지와 서울 편입이 과정을 위해 좋은 일인지는 앞으로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고양시도 아직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고양시 관계자는 “100만명이 넘는 도시로, 서울시로 편입되면 집값 상승 등으로 일부 시민이 편입을 바랄 수도 있겠으나 현재까지 시민들이 서울시로의 편입을 바라는 것은 없다”며 “현재 시 입장이 정리된 것도 없다”고 말했다.

반면 김종혁 국민의힘 고양시병 당원 협의회 운영위원장은 페이스북에 “김포뿐 아니라 고양시도 서울로 편입시켜 행정권과 생활권을 일치시키길 바란다. 경기 인구 1300만명은 너무 많다”고 적었다. 이에 댓글에는 찬반 반응이 함께 올라와 있다.

구리시의 경우 서울시 편입을 건의하거나 정치권과 교감이 있지는 않았던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편입 거론에 갑작스럽고 의아해하면서도 일단 지켜보자는 분

위기다. 구리시는 2009년 남양주시와 통합이 논의될 당시 “오히려 생활권이 가까운 서울 광진구와 합쳐야 한다”며 반대 의견을 낸 바 있다. 인천 통화권(지역번호 032)인 부천시도 서울 편입 여부에서 논의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이다.

부천시 관계자는 “우리는 서울 편입 여부를 검토하지 않았다”며 “별다른 입장도 없다”고 말했다.

성남시 고위 관계자는 “전혀 생각해보지 않았다”면서 “정치권에서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제시해야 한다. 그렇게 되면 우리도 시민 공론화 과정을 거쳐 논의하고 어떻게 할지 연구하는 절차를 밟을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하남시의회 강성삼(민주당) 의장은 “지방자치 시대에 역행하는 처사”라며 “지방에서 그런 요구들이 먼저 나왔다면 모를까 전혀 얘기가 없었는데 ‘인접 도시 서울 편입론’은 생뚱맞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서울 인접 지자체 실무부서와 시민들 사이에서도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다. 한 지자체 공무원은 “일부

정치권에서 내년 총선용으로 서울 편입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게 쉬운 일도 아니다”고 비관적인 생각을 전했다.

또 다른 지자체 공무원은 “여권에서 내년 총선카드로 내놓은 걸로 보이는데 그렇게 확 결정될 사안이 아니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경기도에서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추진 중인데 서울시 편입 논란으로 “배가 산으로 가지 않을까 우려된다”는 말도 나왔다.

이와 관련, 중국 출장인 김동연 경기도 지사는 아직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민주당 소속인 김 지사는 지난 27일 방송 인터뷰 중에 관련 질문을 받고 “아직 진지하게 고려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언급한 뒤 ‘현실성이 별로 없다’는 말이냐는 진행자 질문에 “예”라고 답했다.

앞서 경기도와 도의회가 지난달 26일 행정안전부에 공식 제출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특별법 제정을 위한 주민투표 실시 요청안’에서 대상 지역은 ‘김포를 제외한 북부 10개 시군’이다. / 송원기 기자

## 검찰, ‘50억 클럽’ 광상도 부자 기소…뇌물 공범 혐의



‘50억 클럽’ 의혹으로 광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이 31일 추가로 재판에 넘겨졌다.

아들 병채 씨 와 화천대유자

산관리 대주주인 김만배 씨도 광전 의원의 공범으로 함께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강백신부장검사)는 이날 광전 의원 등 3명을 범죄수익은닉법 위반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광전 의원은 2021년 4월께 김씨로부터 하나은행 컨소시엄 이탈 방지를 도운 대가로 약 25억원(세전 50억원)을 받으면서 화천대유 직원이던 병채 씨의 성과급으로 가장·은닉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병채 씨에 대해서는 광전 의원이 앞서 기소된 뇌물 사건의 공범 혐의를 적용했다.

/ 황순기 기자

## CCTV로 본 여학생 무차별 폭행 50대…‘약강강약’ 본색



무차별 폭행 만류하는 청년

등을 때리며 폭행하기 시작한다. A씨는 B양을 넘어뜨린 뒤 목을 조르는가 하면 고개가 뒤로 넘어가도록 양손으로 머리카락을 당기기도 한다.

레슬링을 방불케 한 무차별 폭행은 8분 가까이 이어졌다.

다행히 오후 10시 10분께 조깅하던 청년이 이 모습을 보고 말리자 A씨는 저항 한번 없이 ‘순한 양’으로 변해 폭행을 멈췄다.

건장한 체격의 이 청년이 A씨를 뒤에서 감싸 안고 있는 사이에 시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A씨를 현행 범 체포했다. 병원으로 옮겨진 B양은 생명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여학생이 통화를 하고 있었는데, 나한테 한 말인 줄 알았다. 나를 비웃는 것 같아서 그랬다”는 취지로 진술하며 혐의를 인정했다.

경찰 관계자는 “죄질이 중하다고 판단해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해 A씨를 구속했다”고 말했다.

/ 심현주 기자

## 국토부, GTX-A 노선명 ‘수도권광역급행철도에이’로 제정 추진



GTX-A 탑승하는 원희룡 장관

국토교통부는 내년 개통을 앞둔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A 노선명 공식 명칭을 ‘수도권광역급행철도에이’로 제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31일 밝혔다.

지난 8월 2일부터 30일간 진행한 노선명 국민공모 당시 명칭을 한글 6자 이내로 제한한다는 조건이 있었으나, 국토부는 “국민 의견을 반영하고 GTX의 특·장점을 온전히 반영하기 위해 이같이 추진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접수한 의견을 선별한 결과, 대부분 GTX의 특성인 ‘수도권’, ‘광역’, ‘급행’, ‘철

국토부는 국민들에게 익숙한 명칭인 ‘GTX-A’ 명칭도 역사 내 각종 안내물, 예매시스템, 누리집 등에 병행 사용할 예정이다.

아울러 접수한 노선명 총 1천487건 가운데 우수한 평가를 받은 49건을 선별했으며, 총 133명의 공모 참여자에게 소정의 선물을 지급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개통 준비를 차질 없이 추진해 하루빨리 GTX-A 개통 효과를 체감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 백경호 기자

## 지구를 위한 그린플루언서 SK incheon petrochem

2030 부산세계박람회용지  
SK도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더나은 지구와 인류의 미래를 위한 행동,  
World EXPO 2030 BUSAN의 시작!

WAVE



[ 이 작품은 다음 키워드를 기반으로 SK이노베이션과 AI가 함께 그린픽처입니다 ]

#에너지 및 자원순환 #선한 에너지 #신제적 혁신 #효율적 에너지 솔루션 # 이해관계자와 함께 성장

## 작품명 세상을 지키는 선한 에너지

SK인천석유화학은  
에너지 공급과 자원의 재순환을 통해  
세상을 선한 에너지로 채웁니다

\*선한 에너지는 탄소를 줄여 나가는 에너지 전환을 통해  
모두에게 이로운 혜택을 전하고자 하는 SK인천석유화학의 지향점입니다



# 보이스피싱 음성분석모델로 ‘전화 속 그놈’ 51명 잡았다

국과수·경찰, 보이스피싱 3개 조직 총책·자금책 등 검거

정부가 올해 세계 최초로 개발한 ‘보이스피싱 음성분석 모델(이하 음성분석모델)’이 보이스피싱 범죄 수사 현장에 활용되며 혁혁한 공을 세우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통합데이터분석센터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올 초 개발해 국과수 감정과 경찰 수사에 투입한 음성분석모델을 활용해 3개 보이스피싱 범죄조직 총책과 자금관리책 등 51명을 검거했다고 31일 밝혔다.

행안부에 따르면 이번에 검거된 3개 조직은 국내 아파트 등에 콜센터 사무실을 갖추고 개인정보, 대포폰 등을 활용해 ‘성관련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 피해자들로부터 약 6억원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검거과정에서는 음성분석모델이 빛을 발했다. 경기남부청 소속 수사관은 올 5



월 해외발신 번호를 ‘010’으로 시작하는 휴대전화번호로 바꿔주는 중계기 현장 단속과정에서 5명을 처음 적발했다.

이후 음성분석모델을 활용해 이들 피의자의 음성과 피해자들로부터 확보한 보이스피싱범의 음성 동일 여부를 판독했다.

이를 통해 동일인이 맞다는 것을 확인한 수사관은 피의자 혐의를 입증하는 한편 여죄 확인, 연루자 추가 확인을 위해 국과수에 심층분석을 의뢰했다.

국과수는 음성분석모델을 활용해 검거된 피의자 음성과 기 보유한 1만3천여개의 보이스피싱 범죄자 음성을 비교·분석

했다. 이처럼 국과수와 경찰의 공조 속에 12차례 결친 상호 분석을 진행한 결과, 미제사건으로 분류돼 있던 ‘해외 OOO 콜센터 조작사건’ 등 17개 사건과 연관성이 확인됐고, 관련 범죄자들을 추가로 검거하기 위한 작업이 진행 중이다.

경기남부청은 자체 분석 및 국과수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혐의자 신원을 빠르게 특정하게 됐고, 통화·계좌내역 조사, 폐쇄회로(CC)TV 확인과정 등 후속 수사를 속도감 있게 진행할 수 있었다고 행안부는 전했다.

행안부는 “국내 보이스피싱 범죄조직 검거에 이어 미제사건으로 남아있던 해외활동 조직의 실체까지 밝혀 조직원을 추가 검거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 (음성분석모델 사용의) 의미가 큰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반겼다. / 송원기 기자



밝은 표정의 김한길 위원장

## 통합위, ‘청년 1인 가구 정책’ 만든다

### ‘청년 1인 가구 특위’ 출범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가 청년 1인 가구를 위한 정책 대안을 만들어 내년 1월 발표한다.

국민통합위는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청년 1인 가구 대응 특별위원회’를 출범하고 김석호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를 위원장에 위촉했다.

특위는 청년 1인 가구의 안정적인 삶에 초점을 맞춰 안전하고 건강한 주거 생활 환경 조성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청년 1인 가구를 위한 서비스 플랫폼 구축과 창업 실패·경력 단절 청년에

대한 재도약 기회도 지원한다.

아울러 2인 이상 다인 가구 지원에 집중된 법·제도의 사각지대 해소 방안을 검토한다.

김석호 특별위원장은 “힘들게 사는 청년들을 위한 정책과 서비스를 과학적 공공과 사회가 함께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두고 특위를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은 “청년 1인 가구 현재와 미래에 대한 불안과 걱정 없이 새로운 도전을 펼치고 그동안 꿈꾸어 왔던 미래를 실현하도록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다”고 말했다.

/ 오정민 기자

## “함께 해주신 이재명 대표님”…尹대통령, 野 먼저 호명하며 예우

여야 순서 호명 관례 깨고 연단 오르며 野 의원에게 먼저 악수 청해



악수하는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김진표 국회의장님, 김영주·정우택 부의장님. 또 함께해 주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님. 이정미 정의당 대표님.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님...”

윤석열 대통령은 31일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국회 시정연설을 이같이 시작했다. 통상 여야 순으로 호명하는 정치권의 관례를 깬 것이다.

윤 대통령은 이후에도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님. 윤재우 국민의힘 원내대표님. 그리고 여야 의원 여러분”이라며 민주당과 국민의힘 순으로 원내대표를 호명했다.

지난해 10월 시정연설에서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김진표 국회의장님과 의원 여러분”으로 연설을 시작했던 장면과 대비된다.

당시에는 민주당이 야권에 대한 전방위 수사·감사 등에 반발해 시정연설 자체

를 ‘보이콧’했던 상황이었다. 이날 연설에는 민주당 의원들이 자리리를 채웠다.

이와 관련, 대통령실 관계자는 통화에서 “여야와 함께 경제 복합위기 등을 타개하고 안보 불안을 극복하겠다는 윤 대통령의 의지를 담았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를 직접 겨냥하며 인사를 건넨 것도 다소 생소한 모습이었다.

양측은 지난해 5월 새 정부 출범 이후 공식 행사에서 몇 차례 조우한 적은 있지만, 윤 대통령이 이 대표를 거론하며 인사말을 한 적은 없었다.

이를 두고 윤 대통령이 예산 정국을 앞두고 거대 야당의 수장인 이 대표의 협력을 얻기 위해 적극적인 모습을 보인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윤 대통령은 본회의장에 입장하면서도 야권을 향한 협조 제스처를 취했다.

먼저 맨 뒷줄에 있던 민주당 홍 원내대표와 이 대표의 순서로 악수했다.

의석에 앉아있던 이 대표는 윤 대통령이 다가오자 일어선 뒤 웃으며 악수했다.

이날 시장연설에 앞서 진행된 사전환담에 이은 두 번째 악수였다.

윤 대통령은 이후 연단으로 이동하면서 서도 통로 쪽 의석에 앉아있던 민주당 의원들을 위주로 악수했다.

윤 대통령 입장과 함께 기립 박수를 보내던 국민의힘 의원들과 달리 민주당 의원들은 손뼉을 치지 않고 착석한 상황이었다. 윤 대통령이 먼저 손을 건네자 상당수 민주당 의원은 일어나 악수했다. 임종석·이형석 의원은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고 다소 굳은 표정으로 손을 잡았다.

윤 대통령은 시정연설에서 “연금개혁·노동개혁·교육개혁을 위해 의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린다”, “정부가 마련한 예산안이 차질 없이 집행되도록 국회의 적극적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 등 발언으로 국회 협조를 당부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연설 중에 따로 박수를 보내지는 않았다.

연설을 마친 윤 대통령은 단상에서 내려와 6분가량 여야 의원들과 다시 악수했다. 야당 의원들은 자리에 굳은 표정으로 앉아있었고, 여당 의원들은 윤 대통령 퇴장 전까지 박수를 이어갔다.

/ 최재윤 기자

## 합참 “북한 정찰위성 3차 발사 시기 예단하기 어렵다”

합동참모본부는 31일 북한의 정찰위성 3차 발사 시기를 전망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성준 합참 공보실장은 이날 국방부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이 이달 중 실시하겠다고 예고한 정찰위성 3차 발사와 관련해 “발사 동향이나 준비 사항을 추적하고 있으나 시기를 예단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북한이 러시아로부터 기술 이전을 받기 때문에 준비 과정이 길어지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우리 관계 당국에서 그에 대해 평가하고 있는데 그것을 말씀드리기는 어렵다”고 답했다.

군의 한 관계자는 “2차 정찰위성 발사 과정의 문제가 러시아의 도움으로 비교적 쉽게 해결될 수 있다면 다음 달에도 3차

발사가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고 러시아로부터 많은 기술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3차 발사는 더 늦어질 수 있다”고 밝혔다.

북한은 지난 8월 24일 2차 발사 실패 직후 국가우주개발국이 사고 원인을 철저히 규명한 후 10월 중 3차 발사를 단행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10월이 채 하루도 남지 않은 상황이어서 북한의 공언은 실현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지난 5월과 8월의 1, 2차 정찰위성 발사 때는 전세계 항행 경로(WWNWS) 상 한국과 북한이 속한 지역의 항행구역 조정국인 일본에 사전 통보한 바 있다.

/ 강현우 기자

# 대한민국의 이름으로 중동의 미래를 함께 열어갑니다

기회의 땅 중동에서 더 큰 꿈을 꿍니다.

모듈러 공법, 탄소 저감 등 혁신기술을 적용하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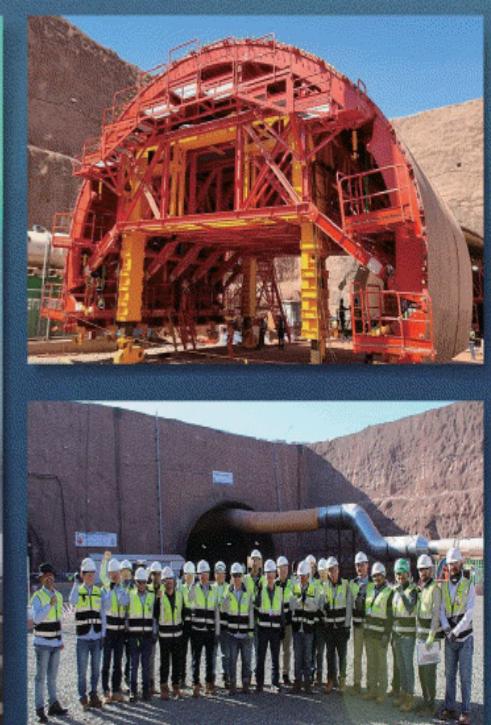
친환경 스마트시티를 건설하는 일부터 청정수소 생산을 통한 에너지 저감까지  
중동의 미래를 여는 가슴 벅찬 도전입니다.

세상에 없던 기술로 함께 하겠습니다.

“나가자 대한민국, One Team KOREA!”

SAMSUNG

삼성물산



# 국도부, PF대출·비아파트 건설 지원 착수…공급대책 본격화

## 제도개선 사항 입법·행정예고 완료…내달 시행 추진

국토교통부는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비(非)아파트 건설자금 등 금융 지원에 본격 착수하는 등 지난달 26일 발표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의 후속 조치를 신속하게 진행하고 있다고 31일 밝혔다.

PF 금융지원의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 한도를 사업비의 50%에서 70%로 확대하고 시공 순위 등 보증 요건을 완화하는 방식으로 지원을 강화했다.

원활한 대출 실행을 위해 지난 16일 원스톱 상담 창구를 개설한 결과, 영업일 기준 열흘(10월 18~27일)간 사업장 34곳이 대출 상담을 받았다.

대책 발표 전인 9월 상당 건수가 평균 7건이었던 것을 고려하면 이용 사례가 크게 늘었다. 상당 수요가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수시 운영하는 'HUG 찾아가는 상담 서비스'도 개시해 자금 조달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개선했다. 아울러 지난 18일 시작된 비아파트에 대한 건설자금 지원의 경우 영업일 기준 열흘(10월 18~27일)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 설명하는 원희룡 국토부 장관

동안 511개 업체가 상담받았다.

이 자금 지원은 해당 7천500만원 규모로 금리 최저 3.5% 조건으로 제공된다.

한편, 지난 16~20일 진행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민간 제안 공모에는 20개 사업장(9천호 규모)이 접수를 마쳤다.

이 사업은 민간이 제안한 사업 부지에 주택도시기금과 민간이 공동 출자해 설립

한 부동산투자회사(리츠)가 민간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것으로, 민간 사업자가 기존 분양사업을 임대사업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의 경우 앞서 주택도시기금 용자 확대와 공사비 증액 기준 현실화 등을 통해 사업성 개선이 이뤄졌고, 향후 기금투자위원회 등의 심의

를 거쳐 지원이 이뤄질 예정이다.

민관합동 사업장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돋기 위해 재운영되는 '민관합동 PF 조정위원회'가 지난달 11일부터 이달 13일까지 진행한 조정 신청 접수에서는 사업장 34곳이 사업 계획 조정을 요청했다.

조정위는 금주 내 1차 실무위원회를 열고 관련 기관 의견 청취 등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국토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협의회를 개최하는 등 인허가 애로 요인을 적극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상호 협력 체계가 구축됐으며, 지난 23일에는 민간의 신속한 인허가를 유도하기 위한 조기 인허가 인센티브 제도가 시행됐다.

나아가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에 따른 제도 개선 사항(9개 법령·훈령)도 입법 및 행정 예고를 모두 마쳤으며, 신속한 개정 절차를 통해 내달 중 시행되도록 할 방침이다.

/ 김철민 기자



전두환 손녀 전우원

## 검찰, 전두환 손자 전우원 징역 3년 구형

### 全 “매일 같이 반성”

검찰이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전두환 전 대통령의 손녀 전우원(27) 씨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3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최경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전씨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항정) 등 혐의 첫 공판에서 징역 3년과 338만원 추징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검사는 “피고인은 다량의 마약류를 상당 기간 매수하고 유튜브 라이브 방송으로 불특정 다수에게 투약하는 모습을 보여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다”며 “자백하며 초범인 점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검은 정장 차림으로 출석한 전씨는 최후진술에서 “너무나 큰 죄를 지어 죄송하다. 매일 같이 잘못을 반성하고 뉘우치며 후회하고 있다”며 “마약이 얼마나 사람의 판단력을 흐리게 하고 위험하고 무서운지 알게 됐다”고 했다. 이어 “두 번 다시 같은 실수를 하지 않겠다”며 “부디 넓은

마음으로 관용을 베풀어 달라. 사회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하겠다”고 요청했다. 전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미국에서 향정신성의 약품인 MDMA(메틸렌디옥시메타페타민·엑스터시), LSD(리서직산디에틸아마이드), 캐타민, 대마 등 마약 4종을 사용한 혐의 등으로 9월 불구속 기소됐다.

전 전 대통령의 차남 전재용 씨의 아들인 전씨는 올해 3월 13일부터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일가의 범죄의혹을 폭로하면서 주목받았다.

경찰은 전씨가 같은 달 28일 미국에서 귀국하자마자 마약 투약 혐의로 체포했으며, 그가 혐의를 인정해 이튿날 석방했다. 전씨는 이후 광주에 잇따라 방문해 5·18 광주 민주화운동 유족에게 거듭 사죄했다. 재판부에는 이같은 전씨의 행동 등을 고려해 그를 선처해 달라는 1만명 이상 명의의 탄원서가 접수됐다. / 안병호 기자



## 김건희 여사, 적십자 바자 행사 참석…에코백 기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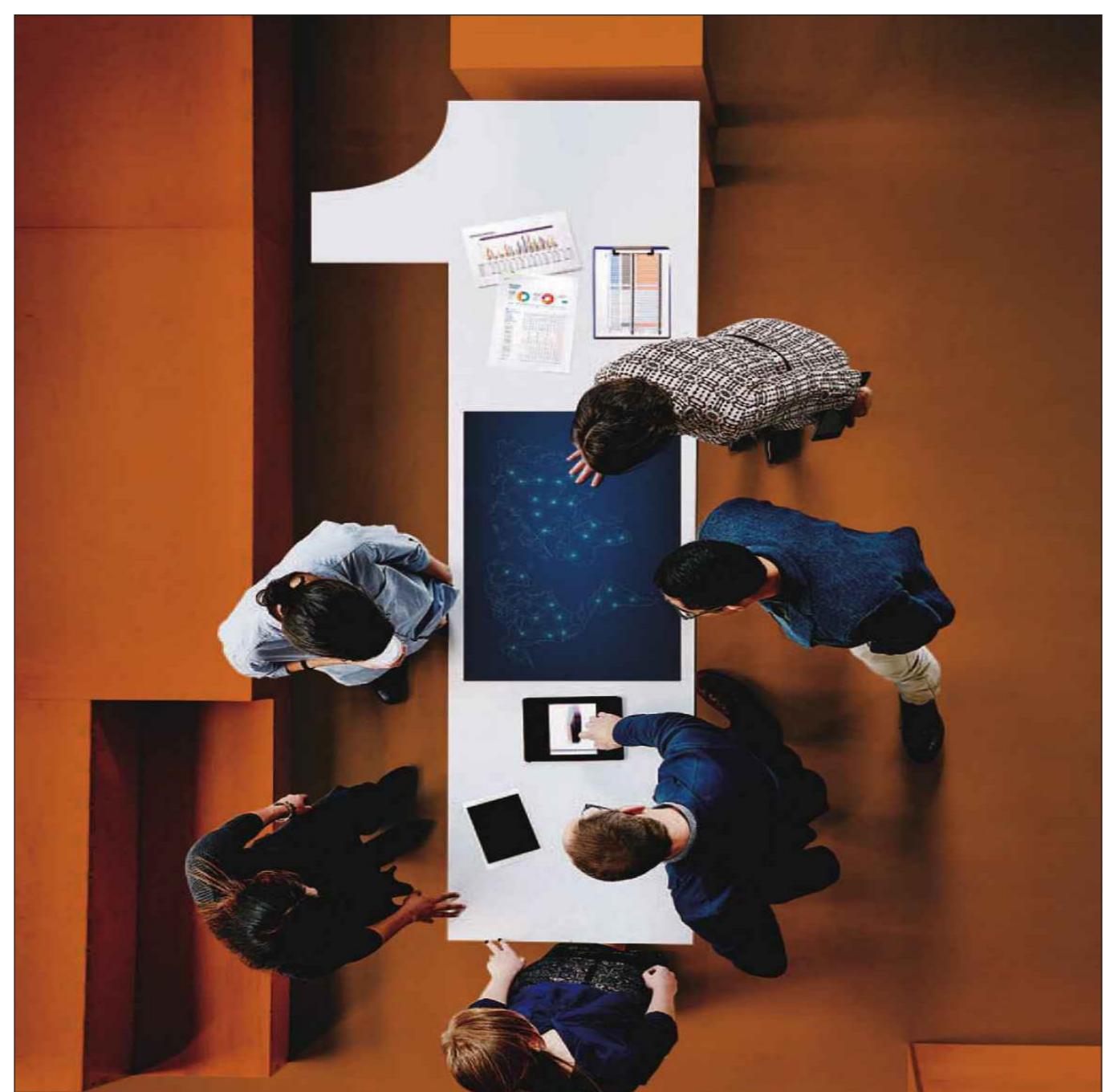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는 31일 오전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2023 적십자 바자 행사'에 참석했다.

김 여사는 올해로 40주년을 맞은 적십자 바자 개최를 축하하는 테이프 커팅식에 함께한 뒤 바자 부스를 둘러봤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 주한 외교대사 부인들

이 세계 각국의 민예품·특산품 등을 판매하는 부스와 미사용품 및 중고 제품 부스를 찾아 물건들을 구매했다.

김 여사는 방문자들이 구입한 물건을 담아갈 수 있도록 플라스틱 감금 캠페인인 '바이바이 플라스틱' 에코백을 기증했다.

/ 송원기 기자



## 하나둘씩 사라지는 여가부 사업…가정폭력 교화도 ‘폐지’ 수순

### “타부처로 일원화”했다지만…법무부·법원행정처 등 “협의한 적 없어”

여성가족부가 내년 가정폭력 가해자 교정 프로그램 예산을 전액 삭감하면서 법무부 등 유관 부처로 이관했다고 밝혔으나, 제대로 된 논의도 이뤄지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현장에서는 가해자와 피해자의 완전한 분리가 어려운 가정폭력 특성상 교정 교육은 필수라며 우려를 나타냈다.

여가부 폐지가 계속 미뤄지는 대신 부처 주요 사업이 하나둘씩 폐지되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31일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실이 여가부에서 받은 '2024년도 예산안 사업 설명자료'를 보면 가정폭력 가해자 교정 치료 프로그램 운영 사업비와 관련 상담 실적이 아예 빠졌다. 지난해만 하더라도 전년과 똑같이 예산 7억9천100만원을 책정하면서 “가해자 성행을 교정해 피해율 감소를 기대한다”고 했는데, 이번에 전격적으로 폐지된 것이다.

2004년 여가부(당시 여성부)가 가정폭력의 대물림 현상을 막는다는 취지 등으로 마련한 사업이 20년 만에 좌초될 위기에 처한 셈이다.

여가부는 설명자료에서 해당 사업 운영을 법무부로 일원화했고, 법무부·법원행정처와 협력해 차질 없이 이뤄지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가 민주당 양이원영 위원실을 통해 타 부처와 협의 내용을 묻자 여가부는 “법원행정처, 법무부 등과 예산 상황을 공유했다”고 답했다.

하지만 언급된 부처의 입장은 달랐다.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연합뉴스에 “여가부에서 가해자 교정 치료 프로그램과 관련해 이관되거나, 협의 등의 통지를 받은 것이 없다”고 밝혔다.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이 2일 오후 서울 용산구의 여성긴급전화1366 종합센터를 방문해 추석연휴 중 가정폭력·성폭력·성매매·스토킹 등 폭력피해자 대상 상담사례를 청취하고 있다.

법무부 관계자도 “가정폭력 상담소에 지원하는 예산이 없을뿐더러, 여가부와 함께 사업을 운영하는 것은 범죄피해자 관련 말고는 없다”고 했다.

교정치료 관련기관 등 실제 현장에서는 이러한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는 반응이다. 양 의원실이 해당 사업의 이관 등을 피교육자나 교육기관에 대해 공지했는지 문자 여가부는 “해당 내역 없음”이라고 답했다.

김양순 가정폭력상담소협의회 회장은 “여가부로부터 통지받은 게 없다”며 “뒤늦게 소식을 듣고 여가부에 물었더니 그렇게 결정됐다는 말만 반복했다”고 전했다.

여가부는 ‘2023년 국고보조사업 연장 평가 보고서’에서 이 사업의 삭감 근거로

이 참석해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이 기간 이뤄진 사전면담과 개별상담, 집단상담 등 연평균 운영 실적도 1만5천 200건이 넘었다.

김 회장은 “코로나19로 밀린 상담이 지난해 이뤄졌고, 아동학대 신고율이 높아진 결과”라며 “앞으로 가정폭력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이 높아지고 해당 프로그램 이용도 늘 것이 분명한데, 예산을 없애는 게 이해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10여년째 이 업무를 해온 안경옥 원주 가정폭력성폭력통합상담소 소장도 “대부분 가정폭력 행위자는 언젠가 가정으로 복귀할 수밖에 없음을 감안하면 꼭 필요한 사업”이라며 “당장 두 달 후에 어떻게 운영할지 막막하다”고 했다.

아울러 폭력 피해자 보호 예산도 줄줄이 삭감되면서 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는 상황이다. 여가부는 ‘가정폭력 상담소 운영’ 사업 예산을 올해 116억3천 700만원에서 27.5%(31억9천700만원) 삭감한 84억4천만원으로 편성했다.

이에 따라 상담소 전국 127개소에서 97개소로, 관련 인력도 662명에서 457명으로 줄인다. 특히 지난해에는 7천984명

## 퇴직연금 1위, 이유가 있습니다

글로벌 ETF를 비롯한 앞선 상품들, 엄격한 리스크 관리, 전문가의 포트폴리오! 1위의 차이를 누리세요.

**퇴직연금 적립금 증권업계 1위** (2022년 말 기준) | **퇴직연금 자산 20조원 돌파** (2023년 1분기말 기준)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 원리금 보장 및 비보장형 합계금액 공시기준

글로벌 투자 파트너  
**MIRAE ASSET**  
미래에셋증권

[미래에셋증권 연금자산관리센터 1588-5577] ■ 투자는 금융상품(퇴직연금)에 대하여 미래에셋증권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가입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DC/IRP]이 퇴직연금은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으로 운용되는 적립금에 한하여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며, 보호 한도는 귀하의 다른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과는 별도로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단, 2개 이상 퇴직연금에 가입한 경우, 합하여 5천만원까지 보호합니다. ■ [DB]이 퇴직연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 과세기간 및 과세 방법은 합장 세법개정 등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습니다. ■ 연금저축 계약기간 만료 전 종도해지하거나 계약기간 종료 후 연금 이의의 형태로 수령하는 경우 세액공제 받은 납입 원금 및 수익에 대해 기타소득세(16.5%)세율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DC 자산관리 수수료(후취) 연 0.10%-0.28%, 운용관리수수료(후취) 연 0.10%-0.30% 적립금 별 상이,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참고. ■ IRP 자산관리 수수료(후취) 연 0.1% / 운용관리수수료(후취) 1억 미만: 연 0.2%, 1억 이상~3억 미만: 연 0.18%, 3억 이상: 연 0.15% (장기계약 할인 및 디렉트계약의 수수료 등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참고). ■ 한국금융투자협회 심사필자 제23-01989호 (2023.06.01-2024.05.31)

/ 이성준 기자

# 與 “尹대통령, 시정연설서 친서민·건전 예산 잘 설명”

“여야가 함께 내년도 예산 충실히 논의하기 기대”

국민의힘은 31일 윤석열 대통령의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 대해 ‘친서민·건전 예산’ 편성 기조를 잘 설명했다고 평가했다. 김기현 대표는 이날 윤 대통령 시정연설 종료 이후 기자들과 만나 “불필요한 예산의 낭비를 줄이고 그 재원을 잘 활용해서 약자 복지를 더 촘촘하고 더 두텁게 하겠다는 것이 아주 분야별로 잘 드러난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어 “예산안에 대해서 꼼꼼하게 잘 졌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설명이 잘 된 것 같다”고 말했다.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나라 살림 정상화를 위한 ‘건전 예산’이자, 약자에 대한 보호는 더욱 두텁게 하는 ‘친서민 예산’이라고 강조했



예산안 시정연설 마친 윤석열 대통령

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번 예산안은 지난 해보다 2.8% 증가한 총지출 656조9천억 원으로 편성됐다. 2005년 이후 가장 낮은

증가율”이라며 “단순한 지출 줄이기를 넘어서 국민의 혈세를 낭비 없이 적재적소에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낭비 요인을

차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복지정책의 최우선을 약자 보호에 두고 더욱 두텁게 지원할 것을 약속했고, 치안, 국방, 행정서비스 등 국민의 안전과 편의를 더 철저히 보장하기 위한 예산안도 충실히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성장동력 확보 예산 배정에 중점을 두는 한편, 우리 국민과 기업의 글로벌 시장 개척과 활동에도 전략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을 약속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은 당면한 복합 위기 극복을 위해 힘을 모아주실 것을 거듭 당부했다”며 “여야가 함께 내년도 예산에 대해 충실히 논의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 송유영 기자



31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이상현 위원장이 국정감사 증인 고발의 건 등에 대한 전체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 문체위, ‘부산 촌동네’ 발언 번복 관광공사 부사장 고발키로

국감 증인 6명 고발 의결

테니스협회 등은 감사원 감사 청구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31일 국정감사에서 위증한 혐의로 이재환 한국관광공사 부사장을 고발하기로 했다.

문체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이 부사장 등 국감 증인 6명에 대한 고발의 건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문체위는 이 부사장에 대해 위증 및 국회 모욕 혐의를 적용했다.

이 부사장은 지난 19일 관광공사 국정감사에서 이 부사장은 부산을 ‘촌동네’라고 언급했다는 야당 지적에 “그런 말 한 적이 없다”고 부인했다가 해당 발언이 담긴 녹취가 공개돼 사과한 바 있다.

문체위는 언론진흥재단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해외 출장을 이유로 불출석한 언론재단 정권현 정부광고본부장에 대해서도 고발 조치하기로 했다.

문재인 정부 시절 대통령 일정 녹화 중

계가 1건인데 여러 차례 있었다며 거짓 답변했다는 야당의 질타를 받은 하종대 한국정책방송원(KTV) 사장, 전임 정부 시절 대북 지원 사업 관련 답변 도중 지원 물자 인수증 확인 시점에 대한 진술이 사실과 다르다는 여당의 지적을 받았던 안영배 전 관광공사 사장 등도 고발 대상이 됐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국회증언감정법)에 따르면 증인이 허위 진술을 하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문체위는 언론재단 이사들의 표완수 전 이사장 해임 건의 문제, 그랜드 코리아레저(GKL)의 횡령 사건, 빛더미에 오른 대한테니스협회 방만 운영 문제 등 국감 기간 지적된 사항 10건에 대해 감사원 감사를 청구하기로 했다.

/ 배승호 기자

## 안철수 “이준석 제명 서명에 4만명 참여…당 결정 지켜보겠다”

혁신위 ‘李 대사면’ 건의에 “결정권 가진 사람이 책임도” 지도부 압박



국민의힘은 해당 행위를 저지를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은 31일 자신이 주도한 이준석 전 대표 제명 징계 서명 운동에 총 4만여명이 참여했다며 당의 제명

결정을 촉구했다.

안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 회견을 열어 “어제(30일)까지 이준석 제

명을 위한 서명 운동에 4만1천348명이 직접 참여해주셨다”며 “지금까지 받은 명단을 당에 제출하고 당의 결정을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이 전 대표 징계 서명운동을 위한 전용 홈페이지를 개설하기도 한 안 의원은 이전 대표가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유세에서 자신의 ‘욕설’ 논란 관련 가짜뉴스를 유포한 데 이어 최근 자신의 ‘건강 이상설’도 퍼트렸다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지금까지 수많은 모욕과 조

롱도 대범하게 무시하고 지나갔지만, 이번에 나서게 된 것은 거짓말의 정도가 지나치고 내 개인이 아니라 소속된 조직 전체에 해를 끼치기 때문이었다”며 “앞으로도 도가 넘는 가짜뉴스나 거짓말에 대해서는 끝까지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당 혁신위원회가 1호 혁신안으로 추진하는 ‘대사면’ 대상 중 이전 대표가 거론되는 것과 관련해서는 “결정권을 가진 사람이 책임도 지게 된다”며 “그걸 생각하고 신중하게 잘 결정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안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당 혁신위를 향해 “다른 무엇보다 이 점을 최우선 순위로 고려해야 만 한다”고 조언했다. / 이형민 기자

## 국방장관 신원식, 與비례대표 의원 사직…우신구 승계



회의에서 신 장관의 의원 사직안을 통과시켰다.

신 장관은 지난달 13일 국방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돼 같은달 27일 인사청문회를 치렀으나 야당 반대로 국회에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가 채택되지 못했다. 이후 지난 7일 윤석열 대통령의 임명 재거를 받아 취임했다.

이날 사직안이 처리됨에 따라, 우신구(72) 한국자동차 부품판매업협동조합 이사장이 비례대표 의원직을 승계해 남은 임기를 채우게 됐다. 우 이사장은 21대 총선 때 미래한국당 비례대표 25번으로 공천을 받았다.

그는 오는 11월 9일 본회의에서 의원직 선서를 하고 의정 활동을 시작한다. / 조규현 기자

## 민주, 尹대통령 시정연설에 “경제 위기의식 없는 ‘맹탕 연설’”

정의 “아집투성이 연설, 독선적 국정 운영 지속하겠다는 선언만”

더불어민주당은 31일 윤석열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에 대해 “당면한 경제 상황에 대한 위기의식이나 국민들의 고단한 삶에 대한 공감, 실질적인 대안은 찾아볼 수 없는 ‘맹탕 연설”이라고 비판했다.

윤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민생을 챙기겠다던 대통령은 아무것도 변한 것이 없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원내대변인은 “윤 대통령의 연설은 경제 위기를 온몸으로 견뎌야 하는 국민의 고통을 외면했고, 억지 성과를 자화자찬하며 자기합리화에 급급했다”며 “연구개발(R&D) 예산 삭감에 대한 구차한 변명만 장황하게 늘어놓는 대통령을 지켜보며 실망을 금할 수 없었다”고 강조했다.

그는 “윤 대통령은 견전 재정을 앞세운 지출 구조조정이라고 변명하지만, 지역을 살리는 예산, R&D(연구개발)를 비롯해 미래를 준비하는 예산 등 필수 예산 삭감은 공약 파기 수준의 ‘묻지마’ 삭감”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내일부터 시작되는 예산안 심사에서 윤석열 정부가 지워버린 예산을 복원하고 국민의 희망을 되찾기 위해 온 힘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의당 김희서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아집투성이 연설이고, 꼭 있어야 하고 필요한 말은 없었던 맹탕 연설”이라며 “여전히 ‘재정 건전성’을 말하며, 파국적 긴축 예산과 부자 감세를 유지하겠다는 대통령의 입장에 변화가 없었다”고 비판했다.

김 수석대변인은 “이태원 참사 특별법과 채상병 특검법 등에 대해 윤 대통령은 말 한마디 보태지 않았다”며 “대통령실 전면 쇄신, 야당과의 협치와 소통에 대한 메시지도 일절 담기지 않은 채 독선적 국정 운영을 지속하겠다는 선언만을 한 셈”이라고 말했다. / 김석규 기자

SAMSUNG

Galaxy Watch6  
Classic Golf Edition

World EXPO 2030 BUSAN, KOREA

\* 상기 이미지는 이해를 위해 연출된 화면이며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 경찰, 지드래곤 내달 6일 첫 조사…이선균도 토요일 재소환

## ‘혐의 전면 부인’ 지드래곤, 간이 시약 검사로 투약 여부 조사

마야 투약 혐의를 받는 가수 지드래곤(35·본명 권지용)이 내달 초 경찰에 자진 출석해 첫 조사를 받는다.

권씨의 법률 대리인인 김수현 변호사는 31일 입장문을 내고 “(권씨가) 다음 달 6일 인천경찰청 마야범죄수사계에 자진 출석하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권씨 측과 일정을 조율했다”며 “당일 오후에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권씨는 지난 28일 소환된 배우 이선균(48)씨와 마찬가지로 마야범죄수사계 사무실에 있는 인천 논현경찰서에 출석해 조사를 받는다. 경찰은 마야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마야 혐의를 받는 권씨를 상대로 간이 시약 검사를 진행해 투약 여부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

또 서울 강남의 유흥업소 실장 A(29·여)씨를 통해 권씨에게 마야를 건넨 협의 의사와의 관계 등도 조사할 예정이다.



이선균-지드래곤

앞서 권씨는 “마약을 투약한 사실이 없다”며 “수사기관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근거 없는 허위 사실이 유포돼 한국을 대표하는 K팝 아티스트인 권씨에게 돌이킬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언론과 미디어에서도 책임 있는 자세를 가져 달라”며 “추측성 보도에 대해서는 허위 사실 유포와 명예훼손으로

끝까지 강경 대응을 하겠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또 첫 소환 당시 시약 검사만 받고 1시간 만에 귀가한 이씨를 이번 주말인 다음 달 4일 오후 다시 소환해 피의자 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마야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대마·향정 혐의를 받는 이씨는 당일 시약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다.

경찰은 최소 2주 넘게 걸리는 국립과학

수사연구원의 정밀 감정 결과가 나오기 전에 일단 이씨 진술부터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이씨의 혐의 인정 여부와 마야 투약 횟수 등에 따라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병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씨는 올해 초부터 A씨의 서울 자택에서 대마초 등 여러 종류의 마약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재 인천경찰청이 마야 투약 혐의로 수사나 내사 중인 인물은 권씨와 이씨를 포함해 모두 10명이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중순 “서울 강남 유흥주점에서 마야가 유통된다”는 칩보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A씨를 구속하고 권씨와 이씨 등 4명을 형사 입건했다.

또 재벌 3세를 비롯해 방송인 출신 작곡가와 가수 지망생 등 모두 5명도 마약 투약 의혹이 있다고 보고 입건 전 조사(내사)를 하고 있다. / 송진영 기자

## ‘뺑소니 의혹’ 황선우, 치상 혐의만 송치



은 나오지 않았고, 녹음 기능도 없어 황선우가 사고를 인지할 수 있을 만큼 충격음이 커었는지 확인할 수 없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또 백미러 파손 정도가 경미한 점으로 미뤄 황선우가 실제 사고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을 가능성도 큰 것으로 봤다.

황선우가 선수촌에서 백미러가 파손된 것을 보고 사고 현장으로 즉시 돌아온 점도 경찰이 도주 치상 혐의를 적용하지 않은 이유다. 다만, 황선우는 당시 B씨의 상태를 살피는 등 사고 조처를 하지 않은 채 다시 선수촌으로 돌아간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황선우는 “B씨가 도로가에 선 채 지인들과 멀쩡히 대화를 나누는 모습을 보고 사고를 내지 않았다고 생각했는데, ‘확실히 확인해봐라’는 지인의 말에 다시 가보니 경찰이 있길래 그제야 사고를 냈다는 걸 인지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황선우가 사고 직후 두 차례나 현장에 온 점에 비춰 도주할 생각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된다”면서 “다만 제한속도 60km/h 도로에서 시속 150km로 과속하다 B씨와 부딪친 것으로 보고 치상 혐의는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B씨는 팔에 가벼운 부상을 입었으며 황선우와 원만히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 최준용 기자

## “이번엔 전청조 모친 추정 인물이 스토킹”

### 남현희가 112 신고



남현희(좌), 전창조(우)

전 편성 국가대표 남현희 씨와 결혼을 예정했다가 이별한 전청조 씨가 스토킹 혐의로 조사를 받는 가운데 이번엔 전 씨의 모친으로 추정되는 사람이 남씨에게 원치 않는 연락을 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경기 성남중원경찰서는 전 씨의 모친으로 추정되는 인물이 남씨를 스토킹했다는 신고를 접수해 수사 중이라고 31일 밝혔다. 남씨는 지난 30일 오후 11시 50분께 “전청조의 엄마라는 사람이 전화를 수

실통 걸고, ‘대화하자’며 카카오톡 및 문자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며 112에 신고했다. 경찰 확인 결과 피신고인은 이날 낮부터 저녁까지 20여 차례에 걸쳐 남씨에게 전화와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그가 실제 전 씨의 모친이 맞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은 휴대전화 가입자 조회 등 통신 수사를 통해 남씨에게 연락을 한 인물이 전 씨의 모친인지 조사할 방침이다.

만약 피신고인이 실제 전 씨의 모친이라면 스토킹 처벌법을 적용해 형사 처벌을 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이런 가운데 남씨와 그의 친척 간에 금전 문제로 다툼이 벌어져 경찰이 출동하는 소동이 빚어지기도 했다.

31일 오전 3시 20분께 성남시 중원구 소재 남씨의 모친 집 앞에서 남씨의 사촌 A씨 측과 남씨 간에 고성이 오가는 일이 있었다. / 백경원 기자

## 아내 밀어 바다에 빠트리고 돌 던져 살해…징역 30년 구형

인천 잠진도 앞바다에서 아내를 바다에 빠트린 뒤 돌을 던져 살해한 30대 남편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31일 인천지법 형사14부(류경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한 A(30)씨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아정불화 때문에 범행했다고 하지만 궁극적인 원인은 피고인의 외도 행위”라며 “피고인은 피해자를 밀어 물에 빠트린 뒤 수위가 높지 않자 더 깊은 곳으로 끌어들이려 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양손으로 들어야 하는 큰 돌을 던져 결국 피해자를 살해한 것으로 계획적으로 범행한 것이 분명하다”며 “피해자 유족과 합의도 하지 못한 점 등도 고려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이날 A씨의 범행 장면에 담긴 폐쇄회로(CC)TV와 열화상카메라

영상을 법정에서 공개하기도 했다.

해당 영상에는 A씨가 바다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B씨를 향해 주변에 있는 큰 돌을 여려 차례 던지고 물에 엎드린 채 떠 있는 아내에게 접근하는 모습이 담겼다.

A씨는 아내에게 다가간 이유를 묻는 재판장의 질문에 “(사망 여부를) 확인하려고 했다”며 “떠내려고 있는 상태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고민하다가 (사고사인 것처럼) 거짓 신고를 했다”고 답했다.

A씨의 변호인은 최후 변론을 통해 “피고인은 처음에는 범행을 부인했지만 자백을 한 뒤 수사에 협조했고 유치장에 입감된 날에는 죄책감 때문에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기도 했다”며 “하루하루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면서 어떻게든 유가족과 합의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 노건우 기자

상가 건물 주차장의 유일한 출입구를 1주일간 차량으로 막은 40대 차주가 징역 30년 구형했다.

A씨는 지난 6월 22~28일 1주일 동안 인천시 남동구 논현동 상가 건물의 지하주차장 출입구에 자신의 차량을 방지해 다른 차량의 통행을 방해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상가 임차인인 A씨는 건물 관리단과 관리비 납부 문제 등으로 갈등을 빚다가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건물 관리단이 이종으로 관리비를 부과했다고 주장했지만, 관리단은 적법한 절차를 거쳤다며 맞섰다.

당시 경찰과 관할 구청은 A씨 차량이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닌 상가 건물에 방지된 탓에 임의로 견인하지 못했다.

A씨는 앞서 지난 19일 결심 공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한다며 선처해 달라고

/ 박현준 기자

**주소기업 성장을 향해  
우리, 함께, 같이  
외국인 고용허가제**

“국내 산업현장의 성장을 이뤄낼  
중소기업 사업주와 외국인근로자의 상생”

2004년 고용허가제 도입 이후 19년동안 94만명의 외국인력 입국

고용노동부 HRDK 한국산업인력공단

## 리커창 추모현장 ‘파란 조끼’ 등장 왜?…“조화 부적절 문구 제거”

中 당국, 추모 기류 검열 나선 듯…‘권력 집중’ ‘독재’ 등 과격 문구 제거 관측

리커창 전 총리가 심장마비로 갑자기 세상을 떠나면서 중국 곳곳에서 추모가 이어지는 가운데 당국이 추모 기류에 대한 검열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31일 소셜미디어 엑스(옛 트위터)와 웨이보(중국판 트위터) 등에 따르면 리 전 총리를 추모하는 이들로 가득한 안후이성 허페이시 흥싱루(路)80호 ‘안후이 문화역사 연구원’ 앞에 최근 파란색 조끼를 입은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이 지역은 리 전 총리가 유년 시절을 보낸 곳으로, 그를 애도하는 조화가 집 둘레에 가득 쌓일 정도로 중국 내에서 추모 열기가 가장 뜨거운 곳이다.

일부 네이티즌은 ‘파란색 조끼를 입은 사람’(藍衣人)으로 불리는 이들이 추모 현장의 질서를 유지하는 역할을 있다고 했고 또 다른 네이티즌은 이들을 ‘제로 코로나’ 시기 흰색 방역복을 입고 주민들을 통제하는 방역요원에 비유하기도 했다.

홍콩 명보는 소식통을 인용해 이들이



안후이성 허페이 리커창 추모 조화 속 문구 살피는 사람들

경찰서나 법 집행 관련 부서 소속이라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일부 파란 조끼를 입은 사람들은 추모객이 가져다 놓은 조화 속 카드의 문구를 확인하고, 부적절한 문구라고 여겨지는 카드를 제거했다”고 전했다.

신문은 그러나 ‘부적절한 문구’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하지 않았다.

다만 소셜미디어에 게시된 조화 사진들을 살펴보면 ‘인민의 총리’라거나 ‘고맙습니다’라는 문구가 대부분이지만 ‘양쯔 강과 황허는 거꾸로 흐를 수 없다’(長江 黃河不會倒流)와 ‘사람이 하는 일은 하늘이 보고 있다’(人在做 天在看) 등 리 전 총리의 생전 발언과 함께 ‘권력 집중’, ‘독재’ 등 과격한 표현으로 정권을 비난하는 문

구도 있었다. 중국 당국은 리 전 총리에 대한 추모 분위기 확산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중국의 대표 포털사이트 바이두에서는 리 전 총리 사망과 관련된 검색어가 사라졌고, 관영매체들도 그의 사망을 알리는 당국의 발표 외에 다른 소식은 전하지 않고 있다.

일부 대학이 학생들에게 리 전 총리 사망과 관련해 사적인 모임을 만들지 말라고 요구했다는 보도도 나왔다.

중국 당국은 리 전 총리의 장례식 일정 조차 발표하지 않고 있다.

일각에서는 리 전 총리에 대한 추모 분위기가 현 최고 지도부에 대한 불만의 표출일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중국 안팎에서는 리 전 총리 사망 일주 일째인 다음 달 3일 ‘조용한’ 장례식이 치러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지만, 관영매체들은 이와 관련한 보도를 하지 않고 있다. / 송진영 기자



지난 2014년 북한 병원을 둘러보는 양골라의사협회 대표단

## 정부 “北재외공관 연쇄 철수, 외화벌이 차질로 유지 어려운 탓”

우간다·양골라·홍콩 주재 공관 철수 보도 잇따라

북한의 재외 공관은 외교관 면책특권과 외교행낭을 약용해 밀수 등 각종 탈·불법 상거래로 운영비를 자체 조달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아프리카에 주재하는 공관에서는 동상이나 무기 수출, 의사·간호사 송출 등에 관여하며 외화벌이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강화되면서 이런 경제활동이 대부분 차단된 것으로 전해졌다.

통일부 당국자는 31일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관련 질문에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강화로 외화벌이에 차질을 빚어 공관 유지가 어려워 철수하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전통적인 우방국들과 최소한의 외교관계를 유지하기도 벅찬 북한의 어려운 경제 사정을 보여주는 한 단면”이라고 말했다.

앞서 북한 조선중앙통신과 아프리카 협회 매체 등에 따르면 북한은 최근 우간다와 양골라에서 공관을 폐쇄했다. 주(駐) 홍콩 총영사관의 경우 폐쇄 방침을 중국에 통보했다는 외신 보도가 나왔다. / 민성호 기자

## 러에 몰수된 젤렌스카 여사 크림반도 아파트, 47만달러에 팔려

### 젤렌스키 대통령의 배우 시절 매입 부동산…러 사업가가 낙찰

러시아에 몰수된 우크라이나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의 부인 올레나 젤렌스카 여사 소유의 아파트가 경매에서 47만달러(약 6억3천만원)에 팔렸다.

러시아 타스통신은 30일(현지시간) 크림반도의 도시 알타의 고급 휴양지 리바디아라는 마을에 자리한 이 아파트가 경매에서 4천430만 루블(47만450달러)에 낙찰됐다고 보도했다.

이는 경매 시작 가격인 2천460만루블(26만4천64달러)을 훨씬 넘는 금액이라고 타스는 전했다.

경매에서는 입찰이 두 차례 이뤄졌으며, 모스크바 출신의 사업가로 알려진 올리나 크림반도 내 우크라이나 재벌과 유명 인사들이 소유한 부동산 57곳이 포함됐다.

영국 일간 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젤렌

스카 여사의 아파트 등을 국유화한 러시아는 지난 5월 이 부동산을 매각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여기에는 젤렌스카 여사의 아파트뿐 아니라 크림반도 내 우크라이나 재벌과 유명 인사들이 소유한 부동산 57곳이 포함됐다.

젤렌스카 여사는 젤렌스키 대통령이 코미디언으로 활동하던 2013년에 이 아

파트를 매입했으나 개조공사를 거친 데다 러시아가 2014년 크림반도를 강제 병합하는 바람에 거주하지는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면적은 119.5m<sup>2</sup>이며 5층에 있어 발코니에서 흙해와 리바디아 궁전이 내려다 보인다고 타스는 전했다.

러시아 당국은 이 아파트를 몰수한 뒤 어떠한 개조도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 황자선 기자

**NH 농협**

100년 농협 함께하는

**키우자! 기부심**

2023년 1월 1일부터 고향에 기부하면  
농축산물을 담례품으로 드립니다

기부하는 지부심이 커지면  
농부라는 지부심도 커지니까  
고향사랑기부제로 키우세요  
당신의 기부심을, 눈부신 농부심으로

광고모델 백종원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이성희 회장

**고향사랑기부제란?**

개인이 자신의 주소지를 제외한  
원하는 지역(고향 등)에 기부하면  
기부자에게 세제 혜택과 기부금의 일정액을  
담례품으로 제공하는 제도

**고향사랑기부 신청 방법**

> 시기: 2023년 1월 1일  
- 온라인: 정부 종합정부시스템(고향사랑 e등)  
- 오프라인: 농협은행·농축협  
\* 세액공제: 10만원 이하(100%), 10만원 초과부분(6.5%)  
\* 기부한도: 1년당 연간 500만원 이내(읍면동 기부불가)

**기부하여 혜택받고 내 고향 살리는  
고향사랑기부제**

기부 ▶ 담례품 구입  
지자체 ▶ 세액공제 - 담례품 제공  
농업인 ▶ 농축산물 공급

## 골드만삭스 “美 연방정부, 올해는 셧다운 가능성 없어”

### “단기 예산 편성시 내년 초 셧다운 가능성 남아”

골드만삭스가 내년은 몰라도 올해에는 미국 연방정부가 일시적 업무정지(셧다운)에 빠질 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내다봤다고 폭스뉴스가 3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골드만삭스 이코노미스트들은 “새로운 지정학적 리스크와 새 하원 의장 선출에 따라 의회가 올해 셧다운을 피하려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골드만삭스는 앞서 이번 분기 2~3주간의 셧다운을 예상했었다. 미 의회는 내년도 예산처리 시한이었던 지난달 30일(이하 현지시간) 셧다운을 피하기 위한 45일짜리 임시예산안을 통과시켰다. 하지만 다음 달 17일 또 다른 데드라인이 다가옴에 따라 셧

다운 우려가 다시 불거지고 있다.

골드만삭스는 다만, 의원들이 단기 예산안을 선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내년 초 셧다운 가능성은 열어놨다.

케빈 메카시가 지난달 임시예산안 처리 과정에서 공화당 강경파에 의해 죽출된 뒤 새 하원의장에 오른 마이크 존슨은 내년 1월 15일 또는 4월 15일까지 임시예산안 편성에 대한 지지 입장 을 밝혔다.

존슨 의장은 29일 폭스뉴스와 인터뷰에서 “예산안에 대한 합의 도출이 최우선 과제”라고 밝혔다.

골드만삭스는 이와 함께 미국의 4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를 1.6%로 높였고 내년 1분기 전망치는 1.7%로 하향 조정했다. / 흥석준 기자

함께 성장하며  
행복을 나누는 금융

# 여행할 때도 하나뿐인 내 편

해외 수수료는 걱정 없는 편

환율 걱정 없이 환전하는 편

낯선 화폐도 두렵지 않은 편

그래서 이번 여행도 더 신나는 편

지금 떠나봐, 트래블로그로  
하나뿐인 여행으로!



18개국통화 환전  
수수료 무료 (~8/31)



해외 ATM 수수료  
부담 제로



해외 가맹점  
수수료 면제



목표환율에 맞춰  
자동 환전 가능

하나금융지주 · 하나은행 · 하나증권 · 하나카드 · 하나캐피탈 · 하나생명 · 하나손해보험 · 하나저축은행  
하나자산신탁 · 하나대체투자자산운용 · 하나에프앤아이 · 하나벤처스 · 하나펀드서비스 · 하나금융티아이 · 핀크

 **하나금융그룹**

• 계약 체결 전 상품설명서 및 상품약관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신용카드 발급이 부적정한 경우(개인신용평점 낮음 등) 카드발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카드이용대금과 이에 수반되는 모든 수수료를 지정된 대금결제일에 상환하여야 합니다. • 금융소비자는 해당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상환능력에 비해 신용카드 사용액이 과도할 경우, 귀하의 개인신용평점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 개인신용평점 하락 시 금융거래와 관련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일정기간 원리금을 연체할 경우, 모든 원리금을 변제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나카드 준법심의 A-23-1127 (2023.06.22~2024.05.31)**

# '서민의술' 소주도 오른다…하이트진로, 참이슬 출고가 6.95% ↑

1년 8개월 만에 소줏값 인상…내달 9일부터 적용

하이트진로는 다음 달 9일부터 소주 제품 가격을 인상한다고 3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소주 브랜드 참이슬 후레쉬와 참이슬 오리지널 출고가는 6.95% 인상된다.

인상 대상은 360㎖ 병 제품과 1.8리터(L) 미만 페트류 제품이다. 담금주 등에 쓰이는 1.8L 이상의 페트류 제품과 일품진로가 가격은 유지된다.

하이트진로 관계자는 “연초부터 소주 주원료인 주정 가격이 10.6% 인상됐고 병 가격은 21.6% 오르는 등 원부자재 가격, 물류비, 제조경비 등 원가 상승 요인이 발생했으나 정부의 물가안정 노력에 발맞추고 소비자들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선에서 인상률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하이트진로의 소주 가격 인상 결정은 지난해 2월 이후



1년 8개월 만이다. 하이트진로는 거래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주류 도매장에 대해 채권 회수 유예를 실시할 예정이다. 또 가격 인상 시점부터 연말까지 판매한 참이슬과 진로 1병당 30원을 적립해 요식업소 자녀 대상 장학사업과 거래처 물품 지원 등 환원 사업에 사용한다.

하이트진로가 주류 소비가 증가하는 연말을 앞두고 가격을 올리면서 소비자들의 부담은 더 커질 것으로 우려된다.

특히 앞서 오비맥주가 재롯값과 물류비 상승 등을 이유로 이달 11일부터 카스, 한맥 등 주요 맥주 제품의 공장 출고가를 평균 6.9% 올리면서, 음식점에서 먹는 ‘소맥’(소주+맥주) 가격이 크게 오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지난 달 기준으로 외식용 맥주와 소주 물가 상승률은 1년 전보다 각각 4.4% 올랐다. 이는 전체 소비자물가 상승률(3.7%)을 웃돈다.

‘처음처럼’을 제조하는 롯데칠성음료는 현재 구체적인 인상 계획이 없다고 전했다. / 흥명성 기자

## 외국서 기념 ‘김치의 날’…올해 김치수출 ‘사상 최대’ 기록할 듯

올해 1~9월 김치 수출액 1억1천887만달러…지난해 동기 대비 10.6% 증가

올해 김치 수출이 증가세로 돌아서 ‘코로나 특수’ 당시를 넘어 사상 최대를 기록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김치는 전

천451만1천달러로 급증했고 2021년에 더 늘어 1억3천991만5천달러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김치는 외국에서 면역력을 높여주는 건강식품이라는 인식이 확산해 ‘코로나 특수’를 누렸다. 그러나 코로나19 사태가 잡잡해지자 지난해 수출액은 1억4천81만 6천달러로 11.9% 줄었다.

사상 최대치를 갈아치울 가능성성이 큰 상황이다.

김치 수출량 역시 역시 2021년 4만2천544t 으로 최대치를 찍었다가 지난해 4만1천 118t으로 소폭 감소했다.

올해 1~9월 김치 무역수지는 329만2 천달러로 2021년에 이어 2년 만에 다시 흑자를 기록할지 주목된다. 올해는 코로나 특수라는 ‘단발성 이벤트’ 때문이 아니

라 외국에서 한국 김치가 K-푸드 대표 음식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미국과 유럽에서 ‘K-김치’의 인기가 갑자기 높아지고 있다.

올해 1~9월 대(對)미국 김치 수출액은 3천64만4천달러로 지난해 동기 대비 41.2% 증가했고 대네덜란드 김치 수출액

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기 때문이다.

해외로 ‘종가’ 김치를 수출하는 대상 관계자는 “이제는 미국에서 김치 소비의 70% 정도는 현지인들 소비”라며 “한류 열풍 속에 김치를 경험해볼 기회가 많아졌고 비건 트렌드에 맞춰 헬씨푸드(건강식)라는 인식까지 형성되며 소비가 계속 늘고 있다”고 설명했다.

/ 남연우 기자

또 정부24 기반의 무인 창구를 설치해

즉시 발급·처리되는 간단한 민원은 시간·공간 제약 없이 신청할 수 있게 한다.

방문민원 대기시간 최소화를 위해 ‘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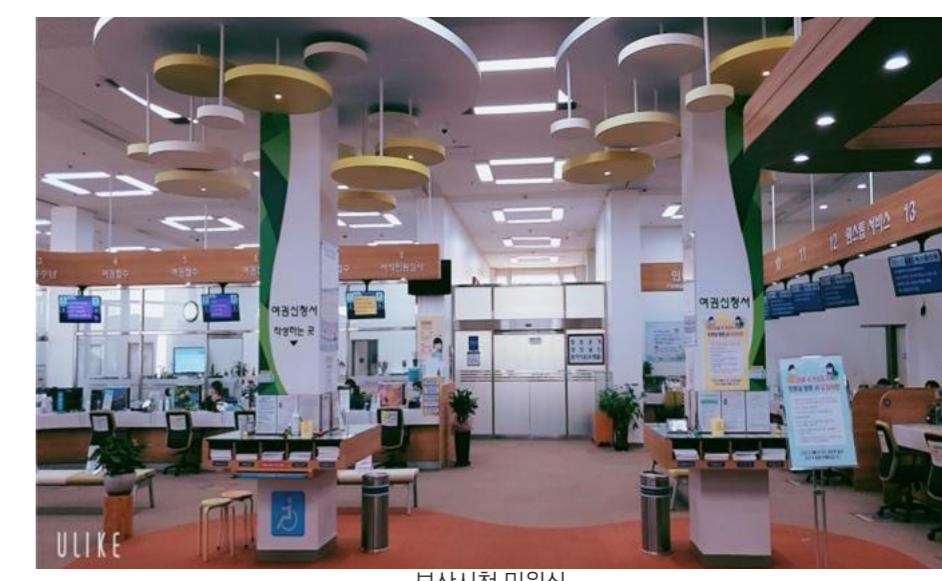
라인 예약제’를 도입하고 카카오톡, 네이버 등 민간 앱과 연계해 국민이 별도 앱을 설치할 필요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행안부는 이러한 내용이 포함된 ‘디지털민원실’은 방문민원의 접수·신청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편 사항을 줄이기 위해 민원서식 자동채움, 인공지능(AI) 음성인력과 같은 편의 기능이 구비된 디지털 환경으로 조성된 민원실이다.

먼저 이를, 주민번호, 주소 등 기본 인적 사항을 매번 기재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모바일 신분증이나 지문 등 간단한 인증을 거치면 각종 민원 서식의 필수 기재 사항은 자동으로 입력되도록 한다.

신용식 행안부 공공서비스국장은 “디지털민원실은 국민이 디지털플랫폼정부의 성과를 민원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공간이 될 것”이라며 “국민 누구에게나 이용 편리한 방문민원 환경이 조성되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오문섭 기자



## 2025년부터 민원실 서류에 인적사항 자동 입력된다

2025년부터 전국 지자체 민원실에서는 필요 서류 작성 시 인적 사항을 직접 기재

하지 않아도 자동 입력되는 시스템이 도입된다.

행정안전부는 2025년부터 전국 지자체 민원실에 이런 기능이 가능한 ‘디지털민원실’을 도입해 국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31일 밝혔다.

‘디지털민원실’은 방문민원의 접수·신청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편 사항을 줄이기 위해 민원서식 자동채움, 인공지능(AI) 음성인력과 같은 편의 기능이 구비된 디지털 환경으로 조성된 민원실이다.

먼저 이를, 주민번호, 주소 등 기본 인적 사항을 매번 기재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모바일 신분증이나 지문 등 간단한 인증을 거치면 각종 민원 서식의 필수 기재 사항은 자동으로 입력되도록 한다.

또 정부24 기반의 무인 창구를 설치해

## 해수장관 “우리 바다와 수산물 절대 안전하다고 확신”

HMM 매각 관련 “재무·경영 능력 종합평가…해운업 발전계획도 보겠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이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도 우리 수산물을 안전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조 장관은 지난 30일 세종시의 한 음식점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우리 바다와 우리 수산물은 절대 안전하다는 제 확신은 변함없다”면서 “충분한 데이터에 의해 설명되지 않았나”라고 말했다.

그는 “수산물 소비 위축 신호는 뚜렷하게 나오지 않았다”면서 외식업계 매출은 소폭 감소했지만, 대형마트와 노량진시장 매출은 오히려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소비 동향을 모니터하면서 온누리상품권 할인행사나 수매·비축 제도를 통해 수산물 소비가 위축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 장관은 오염수에 대해 국민이 불안해한다는 점을 깊이 인식하고 있다면서 공해상 방사능 검사를 확대하고 수산물에 대해서는 어획 구역이나 방법 등에서 대표성 있는 어종을 품종화 조사할 수



능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것이고 해운산업에 대한 이해도나 해운산업을 어떻게 발전시켜나갈지 하는 계획도 평가 기준에 마련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조 장관은 한중 관계 악화 속에 지난 18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제3회 일대일로 국제협력 정상포럼’의 부대행사에 참석한 일로 주목받기도 했다.

그는 이에 대해 “중국 측의 초청을 받고 겸토하던 중에 외교부에서 긍정적인 의견이 와서 참석했다”면서 “정부 대표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초청을 받아 장관 차원에서 간 거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물가 잡기에 나선 가운데 조 장관은 입장장을 앞두고 천일염 가격 안정에 애쓸 것이라고 밝혔다.

해수부는 이달 말부터 정부 비축 햇 천일염 1천t(톤)을 전통시장과 대형마트 등에 공급해 소비자가 50% 이상 할인된 가격에 구매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 흥지은 기자

## 이스트소프트·YBM이 선보인 AI 영어 교사 미셸(왼쪽)과 제임스



‘AI 영어 교사’로 영어 발음 학습 인강을 제작, 내달부터 전국 초등학교에 제공한다고 31일 밝혔다.

AI 영어 교사는 남녀 한 쌍으로, 이름은 각각 ‘제임스’와 ‘미셸’이다. 실존하지 않는 인물을 새롭게 생성하는 이스트소프트의 ‘AI 페르소나’ 기술이 활용됐다.

또 이스트소프트가 독자적으로 개발한 이중 언어 발화 기술이 탑재돼 제임스와 미셸 모두 영어와 한국어를 원어민 수준으로 발화할 수 있다고 회사는 소개했다.

영어 파닉스(발음 중심 어학 교수법) 전문가가 기획한 이번 인강은 YBM의 교사 자료 사이트인 ‘Y클라우드’를 통해 제공되며 인증을 거친 교사라면 누구나 수업에 활용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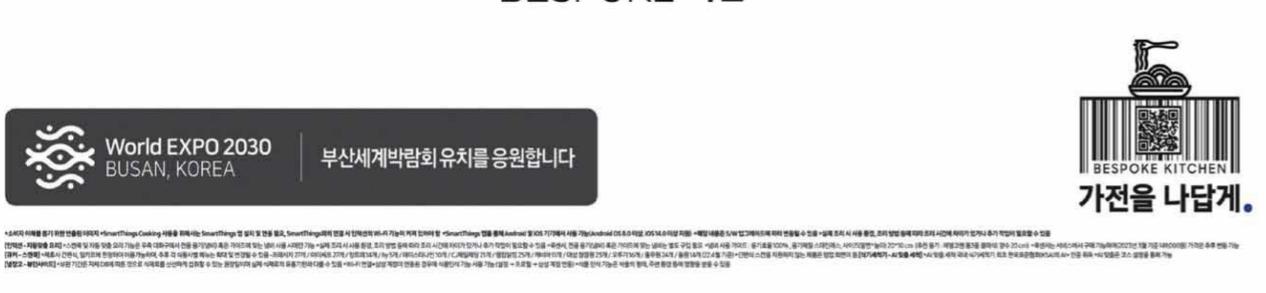
/ 권도훈 기자

## 집밥은 실전.

보여지는 한끼를 위해 재료관리, 불조절, 마무리 어느 것 하나 쉬운 게 없으니까  
비스포크가 시작부터 끝까지 알아서.

BESPOKE 키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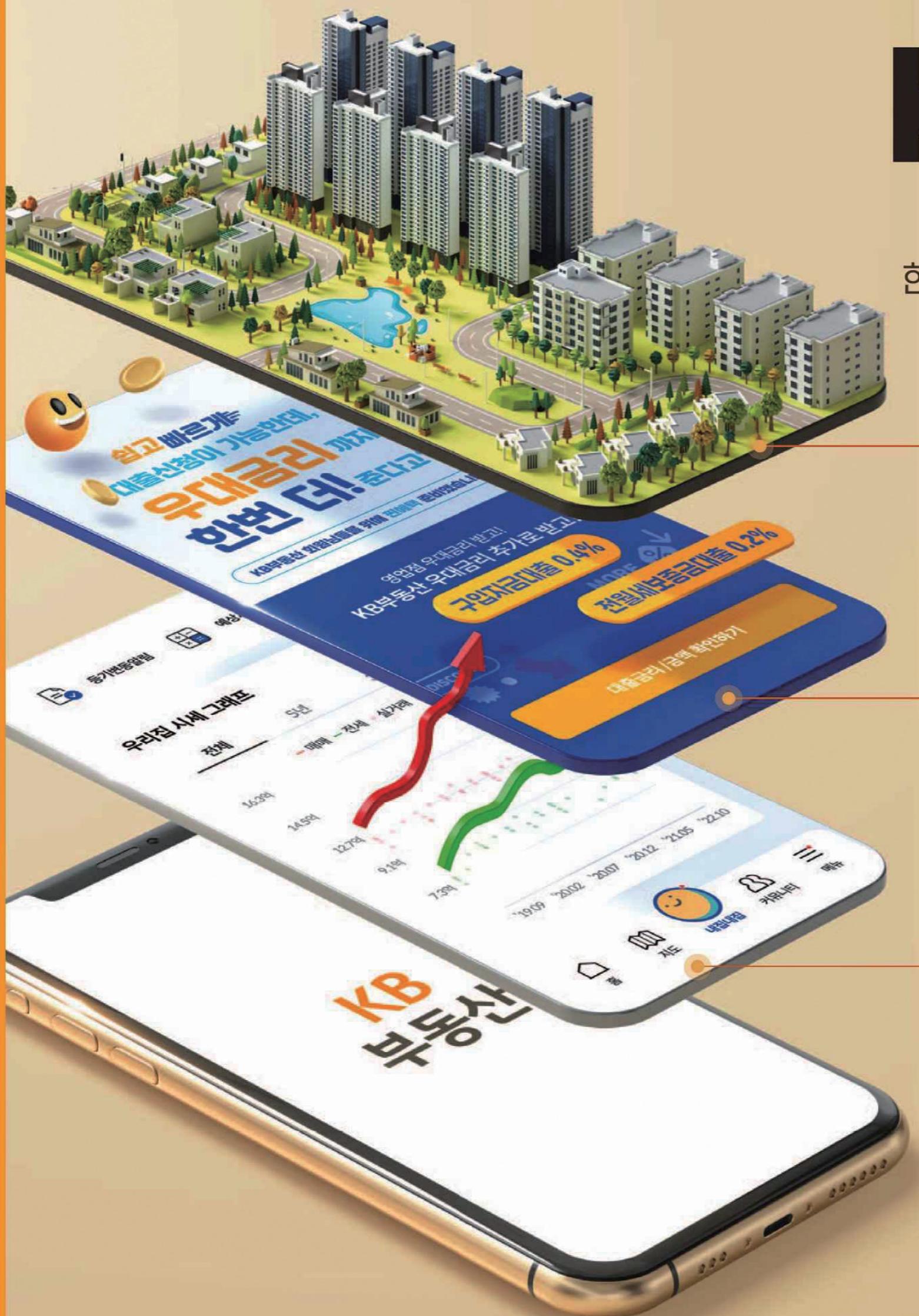
인공지능(AI) 서비스 전문기업 이스트소프트[047560]는 외국어 교육 전문기업 YBM과 영어·한국어 동시 발화가 가능한



KB금융그룹 | 국민의 평생  
금융파트너World EXPO 2030  
BUSAN, KOREA |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KB국민은행이 함께 응원합니다

# 내 집에서 내일의 집까지 KB부동산

살고 있는 집에서, 사고 싶은 집까지  
한번에 관리하는 맞춤형 부동산 정보 앱



내 집 찾을 때

빠른 시세 트렌드와  
차별화된 임지 분석을 통해  
나에게 딱 맞춘 매물 정보 제공



내 집 마련할 때

오직 KB부동산 고객에게만  
추가 우대금리 제공 (1년간)  
\*주택 구입 자금 대출 시 최대 0.4%  
\*전월세 보증금 대출 시 최대 0.2%



내 집 관리할 때

등록된 주소지 기준으로  
가격 변동 내용 알림 및  
생활 편의 정보 제공



지금 다운로드

\*대출신청인이 신용도판단정보 등록자(신용회복지원 또는 베드뱅크 포함)이거나 은행의 신용평가 결과 신용등급이 낮은 고객일 경우 대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상환능력에 비해 대출금, 신용카드 사용액이 과도할 경우 개인신용평점 하락으로 금융거래와 관련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대출 취급 후 일정 기간 납부해야 할 원리금이 연체될 경우, 계약만료 기한이 도래하기 전에 모든 원리금을 변제해야 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대출 사실만으로 신용점수는 하락할 수 있으며, 약정납입일이 경과되면 연체이자(최대 연체이자율은 15%입니다.)가 부과되며, 대출만기일이 경과하거나 이자를 납입하여야 할 때부터 1개월간 지체한 때, 분할상환원(리)금의 납입을 2회 이상 연속하여 지체한 때에는 대출잔액에 대하여 연체이자(기본금리 15%)가 부과됩니다. \* 금리재산정주기 도래시 고객님의 거래실적, 우대금리 제공조건 충족여부, 신용등급 변화 등에 따라 금리가 하락 또는 상승될 수 있습니다. \* 은행 담당자로부터 COFX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들으시고, 각 기준 금리의 특징을 이해하신 후 본인에게 적합한 대출상품, 상환방법 및 이자 부과 시기 등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안내는 KB부동산 매물 구입자금 대출 서비스에 관한 참고자료이며, 실제 상품의 계약은 대출거래약정서, 여신거래기본약관 등의 적용을 받으로 계약을 체결하기 전 반드시 상품설명서 및 관련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KB부동산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서비스 가입 전 서비스 설명서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일반금융소비자가 설명을 요청하는 경우에도 중요한 사항을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금리 우대 혜택과 관련한 기타 자세한 내용은 KB국민은행 고객센터 부동산금융상담팀(☎1644-9571)에 문의하시거나 KB부동산 앱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KB국민은행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3-3431호(2023.08.25), 유효기간 2023.08.25~2023.12.31 까지

# 광주시·신세계프라퍼티, 어등산 관광단지 개발협상 착수

## 60일간 협상 후 연내 협약…2025년 말 착공 목표

광주시와 광주 도시공사는 31일 어등산 관광단지 개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신세계프라퍼티와 60일간 협상에 착수했다.

신세계프라퍼티는 제3자 공모 지침에 따라 최초 제안한 사업계획서를 보완해 사업자 공모에 단독 응모, 기준인 850점 이상 획득으로 지난 26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숲·빛·별·삶'이 어우러진 대한민국 대표 랜드마크 관광단지 조성을 목표로 '숲·힐링', '빛·여가', '별·체험', '삶·머무름' 등 4가지 테마를 설정했다.

6개 공간 구성으로 체류형 복합 관광단지를 완성한다는 구상이다. 복합쇼핑몰이 들어서는 상가 시설 지구는 공모 지침에서 11만6천㎡ 이하로 면적을 제한함에 따라 신세계프라퍼티는 최초 제안한 14만3천951㎡ 대비 20% 가량 축소한 11만5천800㎡를 제출했다.

숙박시설 지구는 콘도 270객실 의무 설치와 레지던스 780실을 계획했다. 휴양·오락·공공편의 시설은 최초 제안한 15만1천695㎡ 대비 20% 확대한 18만191㎡를 제시, 공모 지침(18만㎡ 이상) 조건을 충족했다.



총사업비는 1조2천493억원, 이 가운데 토지와 상가를 제외한 액수의 10%에 해당하는 635억원이 협약이행 보증금으로 산정됐다.

토지보상비는 감정평가에서 제시한 856억원을 웃도

는 860억원이다. 신세계프라퍼티는 상생 측면에서 유원지 부지 내 '별꿈 도서관'을 건립해 기부채납하기로 했다.

지역 상권과 관광 기반 시설을 연계한 관광코스 개발,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한 소상공인 판로 지원, 지역 상권 환경 개선 등 방안도 제시했다.

광주시와 광주 도시공사는 앞으로 실무협상단을 구성해 공모 지침에 근거한 사업 이행 방안 등을 구체화하고, 사업 계획서를 분석해 생점 사항을 해결해 나갈 계획이다.

이어 2025년 말 착공을 목표로 올해 내 사업협약 체결과 민간 개발자 확정 등 사전 절차를 마무리할 방침이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18년간 해묵은 과제로 남아 있던 어등산 관광단지 조성 사업이 순항할 수 있도록 시민 편익성, 투자자 수익성, 행정 신속성의 3대 원칙에 따라 협상을 진행하겠다"며 "143만 광주시민의 염원을 담아 황폐해진 어등산을 관광·휴양·문화·레저·쇼핑이 가능한 대한민국 최고의 관광단지, 신활력 명품 복합단지로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 임민규 기자



온평공영차고지를 찾은 오세훈 서울시장

## '수도권 민생정책' 서울동행버스 확대 경기 4개 노선 추가

### 11월 6일부터 파주운정·고양홍·양주옥정·광주능평 신규 운영

서울시는 수도권 주민의 출근길을 찾아가는 '서울동행버스'가 다음 달 6일부터 경기 남·북부 4개 노선을 추가해 총 6개 노선으로 확대 운영한다고 31일 밝혔다.

신규 노선 출발지는 파주시 운정지구, 고양시 원흥지구, 양주시 옥정지구, 광주시 능평동이다.

대중교통 분야는 시민 생활과 직결된 만큼 경기 남부부터 북부까지 수도권 지역을 폭넓게 아우르며 운행 지역을 다각화한다는 계획이다.

민생 중심 행정을 강조해온 오세훈 시장은 교통 분야에 편리하고 안전한 인프라 구축과 수도권 교통 편의 증진에 초점을 맞춘 정책을 모색해왔다. 광역 교통 난 해소 대책으로 수도권을 연계한 대중교통 확충을 추진해왔다.

/ 강병훈 기자



/ 신진호 기자

## 몽골 장관 일행, 부산 의료관광 체험…다큐 제작

부산 의료서비스와 관광자원을 다른 다큐멘터리가 몽골 현지 방송에서 방영된다. 부산경제진흥원은 지난 21일부터 24 일까지 몽골 주요 방송관계자 38명을 초청해 부산의 의료기술과 관광자원을 담은 '부산의료관광과 웰니스 자원' 다큐멘터리 촬영을 지원했다고 31일 밝혔다.

부산경제진흥원과 몽골 Malchin TV가 함께 기획한 이 다큐멘터리는 부산을 찾는 몽골 관광객을 위해 부산 첨단 의료기

11월에는 몽골 나눔의료 환자가 동아 대학교병원에서 진단부터 수술까지 받는 전 과정을 다큐멘터리에 추가로 담을 예정이다.

이 다큐멘터리는 몽골 전역에 올해 안에 방송될 예정이다.

진양현 부산경제진흥원 원장은 "이 다큐멘터리 제작이 부산의 우수한 의료기술과 웰니스 관광 자원을 몽골에 알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 몽골 환자 유치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 신진호 기자

현대모비스 모빌리티 광고 이미지. 주인공은 어린이가 된 모델이 차량을 타고 있는 모습으로, 차량은 전기차로 표시된다. 배경은 자연 경관과 현대적인 건물이다. 문구에는 "먼훗날 네 여정은 차금보다 훨씬 즐겁고 더 안전할 거야."라고 적혀 있다.

더 즐겁고 안전한 미래 모빌리티, 현대모비스의 전동화 기술이 만듭니다

HYUNDAI MOBIS

## 송파구, 초·중·고·대학생 45명에 장학금 4천500만원



서울 송파구(구청장 서강석)는 출연기 관인 재단법인 송파구인재육성장학재단을 통해 지역 내 초·중·고·대학생 45명에게 4천500만원의 장학금을 지원한다고

교장의 추천과 재단 이사회 심사를 거쳐 최종 선발됐다.

장학금은 초등학생 7명(30만원), 중학생 4명(50만원), 고등학생 27명(100만원), 대학생 7명(200만원)에게 지급될 예정이다. 구는 지역인재를 발굴하고 육성하기 위해 1994년 송파구인재육성장학재단을 설립해 구 출연금과 지역주민의 기부금으로 조성된 기금으로 장학 사업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 29년간 2천800여명에게 총 28억원의 장학금을 지원했다.

구는 30일 송파구청에서 '2023 하반기 장학증서 수여식'을 열었다. 장학생과 학부모 등 90여명이 장학증서를 전달받았다.

/ 양희진 기자

## 충남 11개 기업, 고용 우수기업 인증받아



충남도는 31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무궁화엘앤비·서북·수영로지촌·휴먼바이오·알디자동화·가우스랩·나이스택·소닉스비오엠 등 8개 기업에 고용 우수기업 인증서를 수여했다.

이들 기업은 올해 어려운 여건 속에도 지난해보다 96명을 더 고용해 일자리 창출에 기여했다.

금강실리테크·자우비·파워오토메이션은 20명을 더 고용해 장애인 고용 우수기업으로 인증됐다.

인증 유효기간은 2년이며, 선정 기업은 노동환경개선 금 2천만원 지원 등 혜택을 받는다.

도 명장으로는 자동차정비 직종 이운상 설화모터스 대표, 식품가공 직종 오명숙 민속떡집 대표, 식품가공 직종 고삼숙 굴다리영어조합

법인 대표, 품질관리 직종 산업진흥원 소속 여운종 씨, 석공예 직종 김진명 진명석 재사 대표 등 5명이 선정됐다.

명장들에게는 3년간 400만원씩 기술장려금이 지급된다.

전형식 점무부지사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통해 지역경제를 드높히 받쳐주는 고용 우수기업과 산업기술 발전에 앞장서는 명장에게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지역 사회를 위해 더욱 적극적으로 봉사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 손현수 기자

## 월악산국립공원 내달 4일께 단풍 절정

월악산국립공원의 단풍이 내달 4일께 절정을 이룰 것으로 보인다.

월악산국립공원사무소는 31일 "고로쇠 나무, 복자기, 당단풍나무, 참나무 등에 알록달록 단풍이 들면서 아름다운 가을 정취가 완연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월악산국립공원의 단풍 명소로는 옥순봉, 구담봉, 제비봉 등이 꼽힌다.

또 맑은 물이 흐르는 만수계곡자연관찰로도 가족 단위 텁방객이 많이 찾는 곳이다. 월악산국립공원사무소 관계자는 "이번 주말에 월악산국립공원을 방문하면 가을 정취를 만끽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황진주 기자

금융의 모든 순간

NH농협금융

노후걱정 없는 든든한 연금준비가 시작된다

# 난, 든든한 퇴준생

"NH농협은행의  
퇴직연금으로 미리  
준비하는 든든한 노후  
생활"

## NH농협은행 퇴직연금과 함께 빈틈없는 퇴준생이 되어보세요



### 퇴직연금 수익률관리센터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고객맞춤형 수익률 관리



### 개인형 IRP

연말정산 세액공제는 물론 든든한 노후를 위한 솔루션



### 사전지정운용제도(디플트옵션)

적립금 자동 운용으로 장기적 수익률 제고

\* [DC/IRP] 이 퇴직연금은 예금보호대상 금융상품으로 운용되는 적립금에 한하여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귀하의 다른 예금보호대상 금융상품과는 별도로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단, 2개 이상 퇴직연금에 가입한 경우 합하여 5천만원까지 보호합니다.) ※ 실적배당형상품(펀드)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으며, 운용결과에 따라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고, 그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 당행은 위험성, 수익성, 수수료, 해지방법 등 금융투자상품에 관하여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투자자는 투자하시기 전 반드시 영업점 직원으로부터 그러한 설명을 충분히 듣고 투자결정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가입하시기 전에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실적배당형상품(펀드)에 가입하시기 전에 투자내성, 환매방법 및 보수 등에 관하여 (간이)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과거의 운용실적이 미래의 수익률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 해외투자상품의 투자는 환율변동 및 투자대상 국가의 시장, 정치, 경제상황 등의 위험으로 시산(시가)가 변동되거나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적립금 수익률은 해당 운용관리기관을 통해 운용하시는 사용자 및 기입자의 운용성과이며, 해당 운용기관의 직접적인 자산운용결과가 아님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연금저축 계약기간 만료 전 종도해지하거나 계약기간 종료 후 연금 이외의 형태로 수령하는 경우 세액공제 받은 납입원금 및 수익에 대해 기타소득세(16.5%) 세율이 부과될 수 있으며, 과세기준 및 과세방법은 향후 관련 법률의 제·개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금융소비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라 충분한 설명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가까운 NH농협은행 영업점 또는 퇴직연금 전용콜센터(☎ 1588-599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상품당부서 : 퇴직연금부] 준법감시인 심의일 : 2023-3112[2023.06.13~2024.06.12]



World EXPO 2030 |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BUSAN, KOREA NH농협은행이 응원합니다

NH농협은행



SK telecom

T roaming

# 혜택이 넘치는 가족로밍의 탄생

가족 중 1명만 baro 요금제 가입하고 3,000원만 추가하면  
더 넉넉해진 데이터를 온 가족이 공유하고 온 가족 baro 통화, 문자 무료



## 더 넉넉해진 baro 요금제 혜택

- 혜택1. 전 세계 188개국에서 내 폰 번호 그대로
- 혜택2. baro 통화, 문자 무료
- 혜택3. 0청년 요금제 가입 고객님 상시 50% 할인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SK도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WAVE

baro 요금제 가입 시 문자는 기본 제공, T전화 앱을 통해 baro 통화 이용 시 음성로밍 요금 미발생(한국 및 방문국 외 다른 국가로 발신 제외)  
0청년 요금제 가입 시 50% 할인자동 적용 | 할인 횟수 제한 없음 | SK텔레콤 가족결합상품에 가입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를 통한 증명 필수 | 자세한 내용은 T 월드 홈페이지 참고



## 홀란, 게르트 월러 득점상 받아…메시 “내년 발롱도르는 네가”

‘괴물 골잡이’ 엘링 홀란(23·맨체스터 시티)이 세계 최고의 축구 선수에게 주는 발롱도르는 첫 수상에 실패했지만, 올해 최고 골잡이로는 인정받았다.

홀란은 31일(한국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2023 발롱도르 시상식에서 게르트 월러 상을 받았다. 게르트 월러 상은 직전 시즌에 프로 경기와 A매치에서 가장 많은 골을 넣은 선수에게 주는 것으로 지난해부터 시상했다.

홀란은 2022-2023시즌 맨체스터 시티(잉글랜드)에서 52골, 노르웨이 대표팀에서 4골 등 총 56골을 넣어 지난해 로베르트 레반도프스키(FC바르셀로나·폴란드)에 이어 두 번째로 이상을 받았다.

홀란은 “골 넣는 게 내 일이고, 내가 가장 잘하는 일이다. 욕심을 버리고, 순간에 집중하고, 예리함을 유지한 결과다. 지난



게르트 월러 득점상 받은 홀란



발롱도르 주인공 메시

시즌 여러 번 느낀 이 느낌을 계속 이어가고 싶다”고 수상 소감을 말했다.

홀란의 지난 시즌 활약상은 ‘총격적’이라는 표현이 딱 들어맞았다.

2022-2023시즌을 앞두고 맨시티 유니폼을 입은 홀란은 헤트트리트를 총 5차례

나 기록하는 등 골 폭풍을 일으키더니 프리미어리그(EPL·36골)와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UCL)에서 ‘득점 2관왕’에 올랐다.

홀란의 활약을 앞세워 맨시티는 EPL, UCL과 잉글랜드축구협회 FA컵에서 모두

우승하며 ‘트레블’을 달성했다.

그래서 홀란의 생애 첫 발롱도르 수상을 점치는 목소리가 작지 않았으나, 트로피는 결국 2022 카타르 월드컵 우승을 이뤄낸 리오넬 메시(인터 마이애미)에게 돌아갔다.

메시는 수상 소감을 말하면서 자신의 뒤를 쫓는 홀란과 키리안 음바페(파리 생제르맹)를 향해 덕담을 아끼지 않았다.

메시는 “홀란과 음바페도 언젠가 발롱도르를 받게 될 것”이라면서 “홀란도 이번 발롱도르를 받을 자격이 있었다. EPL과 UCL에서 득점왕으로 우승을 경험했다. 이 상은 홀란의 것이 될 수도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홀란을 향해 “내년에는 네가 이상을 받을 거야”라고 말했다.

/ 최준용 기자



밸 감독과 선수들

### 여자축구 벨호, 내일 한중전

#### 파리행 8부 능선 도전

이제 ‘만리장성’을 넘으면 파리까지 한 계단만 남는다. 콜린 벨 감독이 이끄는 한국 여자 축구 대표팀은 11월 1일 오후 8시 35분(이하 한국시간) 중국 푸젠성의 샤먼 이그렉 스타디움에서 중국을 상대로 (1-0 승)에서 겨룬 것이다. 이후 중국을 상대로 9경기(3무 6패) 연속 무승을 기록했다. 다만, 최근 경기 내용을 놓고 보면 양 팀 사이에 전적만큼의 큰 격차는 없어 보인다.

지난해 2월 인도에서 열린 여자 아시안컵 결승 맞대결에서 한국은 2-3으로 아깝게 역전패해 준우승했다. 전반전 먼저 2골을 넣고 후반전 3골을 얻어맞고 졌다.

그해 7월 일본에서 치러진 동아시안컵에서는 중국과 대등한 경기를 펼친 끝에 1-1 무승부를 거뒀다. 이 경기에서도 선제골은 한국의 차지였다.

태극전사들이 태국전에서 과시한 ‘막강화력’, 그리고 북한전에서 보여준 훈실한 수비를 중국전에서 모두 보여준다면 중국 전 승리를 기대해볼 만하다.

한국의 중국전 세부 전략은 앞서 오후 4시 30분 시작하는 북한-태국 경기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이번 대회에서 드러난 전력을 보면 북한이 태국에 질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

북한이 승리한다면 한국은 중국에 반드시 승리해야 할 드릴을 가려 조 1위를 기대할 수 있다. 이 경우 북한이 태국을 상대로 몇 골 차 승리를 거두느냐가 중요해질 전망이다. 한국이 중국과 비기면 북한에 이어 조 2위가 된다. A, C조 2위 팀과 승점, 골득실 등 성적을 비교해 수위에 오르면 4강에 진출한다. 만약 한국이 중국에 진다면 조 3위로 내려앉아 곧바로 탈락한다.

최근 승리는 무려 8년 전 동아시안컵 / 이형규 기자

## ‘역전골’ FC서울 월리안, K리그1 35라운드 MVP



프로축구 K리그1 35라운드 최우수선수(MVP)의 영예는 FC서울의 미드필더 월리안에게 돌아갔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은 31일 “월리안이 29일 수원종합운동장에서 열린 수원FC 전에서 공격진에 활력을 불어넣는 키 플레이어 역할을 했다”며 “후반 14분 역전골을 터트리며 서울의 4-3 승리에 힘을 보탰다”고 라운드 MVP 선정 배경을 밝혔다.

서울은 수원FC전에서 선제골을 내줬지만 기성용의 동점골과 월리안의 역전골이 이어지며 경기를 뒤집었다. 이후 3-3으로 팽팽하던 후반 추가시간 김경민의 결승골이 터진 서울이 4-3으로 승리했다.

/ 신재일 기자

이 터진 서울이 4-3으로 승리했다.

이 터진 서울이 4-3으로 승리했다.

## ‘한국 3쿠션 간판’ 최성원, 4전 5기만에 프로당구서 첫 축배

‘한국 3쿠션 간판’ 최성원(휴온스·46)이 프로당구 PBA 데뷔 다섯번째 도전 만에 감격스러운 첫 우승을 일궜다.

최성원은 30일 경기도 고양시 고양킨텍스 PBA 스타디움에서 끝난 프로당구 2023-2024시즌 5차전 ‘휴온스 PBA 챔피언십’ 결승에서 팀 동료인 하비에르 팔라손(스페인·35)을 세트 점수 4-1(15-1 15-9 9-15 15-8 15-1)로 제압하고 프로 통산 첫 우승컵을 들어올렸다.

최성원은 우리나라 선수로는 최초로 3쿠션 세계선수권대회와 3쿠션 월드컵에서 우승했던 화려했던 아마추어 무대를 뒤로 하고 프로 무대에 뛰어든지 5개 투어만에 정상을 밟았다.

이전 4개 투어 대회 연속 1회전에서 고배를 마셨으나 이번 우승으로 상금 1억원을 받고 랭킹포인트 10만점을 얻어 시즌 잔류를 확정하고 강등의 걱정에서도 벗어났다.

최성원은 1세트 2011년에서 하이런 9점을 폭발하며 기선을 제압한 뒤 2세트에서도 5번의 뱅크샷 성공으로 10점을



획득해 승기를 잡았다.

3세트를 내주고 맞선 4세트가 승부처였다. 8-7로 앞선 팔라손이 4이닝부터 연속 공타로 주축인 사이 최성원이 5이닝부터 8점을 추가해 우승의 팔부능선을 넘었다.

최성원은 승부사답게 5세트 3이닝에서 하이런 12점을 몰아쳐 화끈하게 우승을 결정지었다.

최성원은 “승리가 한 번도 없어 마음 고생이 정말 심했다. 자체도 했다”며 “이번 대회에서는 특히 행운이 많이 따라 설움을 한 번에 털어버릴 수 있는 계기가 된 것 같다. 앞으로도 더욱더 열심히 하는 최성원이 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 박정훈 기자

##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처방은?

# 에너지 절약



깨끗한 에너지로  
세상을 따뜻하게

## ‘환승연애’·‘여고추리반’ 돌아온다…티빙 내년 콘텐츠 라인업

### ‘비숲’ 스피드 오프 시리즈부터 영화 ‘기생충’ 작가의 신작까지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티빙이 내년 신작 라인업을 31일 발표했다.

내년 드라마는 배우 이솜과 안재홍이 5년 차 부부로 호흡을 맞춘 ‘LTNS’(Long Time No Sex)로 포문을 연다.

삶에 치여 관계가 소원해진 부부가 돈을 벌기 위해 불륜 남녀 협박에 나서고, 그 과정에서 이미 망가져 버린 둘의 관계를 마주하는 이야기를 담은 코미디 드라마다. 각양각색 불륜 남녀들의 이야기가 예피소드 형식으로 펼쳐진다.

‘비밀의 숲’ 시리즈의 스피드 오프 ‘좋거나 나쁜 대체’도 내년에 시청자들을 만난다. 배우 이준혁이 알집지만, 미워할 수 없는 캐릭터 서동재를 그대로 연기하고, 원작을 집필한 이수연 작가가 크리에이터로 참여한다.

배우 전종서가 고구려의 왕후 우희를 연기하는 액션 사극 ‘우씨왕후’, 21세기형 신데렐라 이야기를 그린 ‘나는 대놓고 신



왼쪽부터 이준혁·전종서·고아라

데렐리를 꿈꾼다’, 동명의 웹툰을 원작으로 하는 ‘파라미드 게임’ 등도 라인업에 포함됐다.

로맨스 사극 ‘춘화연애애담’에서 고아라는 주제적으로 사랑을 찾아 나서는 화리 공주로 변신하고, ‘사크: 더 스톰’에서 김민석은 학교 폭력 피해자이자 세계 종합 격투기 챔피언이 된 차우솔 역을 맡는다.

영화 ‘기생충’의 공동 각본가 한진원 작가의 신작 ‘러닝메이트’도 티빙에서 공개된다. 학생회장 선거를 배경으로 한 정치 드라마다.

tvN과 티빙이 공동으로 기획 및 제작 한 시리즈도 관심을 끈다.

신민아와 김영대의 ‘손해 보기 싫어서’는 손해 보기 싫어서 가짜 결혼식을 감행

한 여자와 피해주기 싫어서 가짜 신랑이 된 남자의 로맨스를 담았다.

‘밥 잘 사주는 예쁜 누나’, ‘봄밤’ 등을 만든 안판석 감독의 신작 ‘졸업’도 있다. 정려원과 위하준이 주인공으로 나서 대치동 학원기를 배경으로 펼쳐지는 사제지간 로맨스를 연기한다.

원경과 이방원의 부부 관계와 생을 새로운 관점에서 재창조한 ‘원경’도 내년 방송된다. 차주영과 이현욱이 사극에 첫 도전장을 낸다.

사랑받았던 오리지널 예능 시리즈도 돌아온다. 7년 만에 돌아오는 ‘크라임씬리턴즈’에는 장진, 박지윤, 장동민, 키, 주현영, 안유진이 출연하고, ‘여고추리반’, ‘환승연애’는 각각 시즌3으로 돌아온다.

‘스트리트 우먼 파이터2’ 출연 크루들의 글로벌 라이프 스타일을 파헤치는 관찰 리얼리티 ‘스우파2: 월드와이드로그’도 내년 공개된다.

/ 이은성 기자



왼쪽부터 MBC 안형준 사장·하이브 방시혁 의장

### MBC·하이브 4년 만에 화해 프로그램 출연 재개되나

MBC와 국내 1위 가요 기획사 하이브가 약 4년 만에 극적으로 손을 맞잡고 화해했다. 이에 하이브 소속 가수들의 MBC 프로그램 출연이 재개될지 방송가와 가요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30일 MBC에 따르면 안형준 MBC 사장과 하이브 방시혁 의장은 이날 환담했고, 안 사장은 이 자리에서 과거 잘못되고 낡은 제작 관행들 때문에 상처받았을 아티스트들에 대한 유감의 뜻을 밝혔다.

또한 하이브 측에 선진적 제작 관행 정착을 위한 대화를 제안했다. 아울러 두 사람은 K팝과 K-콘텐츠의 발전을 위한 의견을 나눴으며, 이른 시일 내에 구체적인 협력 방안에 대해 함께 발표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MBC와 하이브는 그동안 서로 ‘깰끼러운’ 갈등 관계였다. 하이브 소속 가수들이 MBC의 간판 음악 프로그램 ‘음악중심’ 등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양측의 갈등은 2019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월드스타로 부상하던 방탄소년단(BTS)은 미국 뉴욕 타임스퀘어에서 열린 미국 신년 전야 특별 무대에 섰

/ 권유희 기자

### ‘그대들은 어떻게 살 것인가’ 개봉 6일째 100만 관객 돌파



영화 ‘그대들은 어떻게 살 것인가’ 속 한 장면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의 새 애니메이션 영화 ‘그대들은 어떻게 살 것인가’가 30일 누적 관객 수 100만명을 넘겼다고 수입사 대원미디어가 31일 밝혔다. 지난 25일 개봉한 지 6일 만으로, 올해 초 흥행 돌풍을 일으킨 일본 애니메이션 ‘스즈메의 문단속’과 비슷한 속도로 100만 관객을 달성했다.

‘그대들은 어떻게 살 것인가’는 호불호가 엇갈리는 분위기에도 개봉일부

터 전날까지 일일 박스오피스 정상 자리를 지키고 있다. 예매율 역시 이날 오전 9시 기준 23.8%(예매 관객 수 4만8천여 명)로, 정지영 감독의 ‘소년들’(15.3%, 3만1천여 명)을 따돌리고 1위를 수성 중이다.

CCG가 실제 관람객의 평점을 바탕으로 산정하는 골든에그지수는 71% 까지 회복했다. 개봉 초기에는 60% 중 반까지 떨어져 기대 이하의 평가를 받았다.

이 영화는 미야자키 감독이 10년 만에 선보이는 신작으로, 시공간을 초월한 신비한 세계에 발을 들인 소년 ‘마히토’가 겪는 일을 그린 판타지다.

/ 김호영 기자

### BTS 정국 ‘세븐’, 스포티파이 최단기간 10억 스트리밍

그룹 방탄소년단(BTS) 정국의 솔로 데뷔곡 ‘세븐’(Seven)이 세계 최대 음원 플랫폼 스포티파이에서 가장 짧은 기간에 10억 스트리밍을 달성했다.

스포티파이는 공식 SNS를 통해 31일 이같이 밝혔다.

‘세븐’은 발표 108일(10월 30일 기준) 만에 누적 10억 스트리밍을 기록했다. 이는 팝스타 마일리 사이러스가 ‘플라워스’(Flowers)로 세운 종전 10억 스트리밍 기록 112일보다 4일 단축된 것이다.

‘세븐’은 지난 7월 14일 발표와 동시에 1천599만5천378회 재생되며 스포티파이 ‘네일리 톱 송 글로벌’ 차트 1위로 진입했다. K팝 솔로 가수가 이 차트에 1위로 진행한 것은 정국이 최초였다.

‘세븐’은 스포티파이 발표 ‘2023년 여름 가장 많이 스트리밍된 곡’ 3위에 오르기도 했다.

정국은 이 같은 인기에 힘입어 ‘세븐’으로 미국 빌보드 메인 싱글 차트 ‘핫 100’ 1위



에 올랐다. 그는 다음 달 3일 솔로 앨범 ‘골든’(GOLDEN) 발표를 앞두고 있다. 이 앨범에는 ‘세븐’, ‘3D’, 타이틀곡 ‘스탠딩 넥스트 투 유’(Standing Next to You) 등 총 11곡이 수록된다.

‘스탠딩 넥스트 투 유’는 정국의 리듬감 있는 보컬이 돋보이는 레트로 평크 곡이다. ‘세븐’의 프로듀서 앤드루 와트와 샤크이 다시 한번 힘을 보탰다.

/ 남현희 기자

### 경찰연합신문

[www.koreapolicenews.com](http://www.koreapolicenews.com)

회장·발행인 송원기 주소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여의도동) 국회본관 175

편집인 최영민 대표전화 1533-1545 / 팩스 : 0508-9192546

인쇄소 아이피디 E-mail unionilbo12@naver.com

청소년보호책임자 이민영 등록번호 서울, 아53015 서울, 가50142

구독광고문의 : 1533-1545 / 구독료 : 월 15,000원, 1부 800원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고용노동부

### 일터에 안심과 안정을 더하다

# 노무제공자 고용·산재 보험 적용 직종



· 보험설계사 · 건설기계조종사 · 방문강사 · 골프장캐디 · 관광통역안내사 · 퀵서비스기사 · 대리운전기사 · 대출모집인 · 방문판매원 · 대여제품방문점검원 · 가전제품 설치기사  
· 신용카드회원모집인 · 택배기사 · 어린이동화버스기사 · 정보통신망소프트웨어 기술자 · 방과후학교강사 (24.1.부터 유치원 방과후과정 어린이집 특별활동프로그램 강사까지 신재보험 적용)  
· 화물차주 [건설현장 화물차주 기타 운송 품목 화물차주는 신재보험만 적용]

World EXPO 2030  
BUSAN, KOREA |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응원합니다.

# 일상을 플랫폼하다



## LG유플러스 4대 플랫폼

초개인화된 맞춤형 통신 경험을 제공하는  
**라이프스타일 플랫폼\_너겟**  
축구, 야구, 골프 등 모든 스포츠 팬을 위한  
**놀이 플랫폼\_스포키**  
아이의 배움습관을 키우는 국내 최초 맞춤 교육 서비스,  
**성장케어 플랫폼\_아이들나라**  
메타버스 공간에서 AI친구와 실감나게 체험하며 학습하는  
**Web 3.0 플랫폼\_키즈토피아**

LG유플러스의 4대 플랫폼이  
모두의 일상을 원더풀하게 바꿉니다

 **LG U+**